

제36회

정암신학강좌

정암 박윤선의 변증과 기도

일시: 2024년 11월 5일(화) 오후 1:30~7:00

장소: 지구촌교회 사랑채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6)

<제1강좌>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정암의 이해와
'개혁파 변증'에 대한 정암의 가르침 ---- 이승구 교수

<제2강좌> 정암 박윤선의 변증:
칼 바르트 비판 중심으로 ---- 박바울 교수

<제3강좌> 어록으로 본 정암 박윤선의 기도론과 실천
---- 정창균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제36회 정암신학강좌

제36회 정암신학강좌

정암 박윤선의 변증과 기도

발행일: 2024년 11월 5일
발행인: 안두익, 안상혁
편집인: 이영래, 김중근
펴낸곳: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주소: 443-791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50(원천동)
전화: (031) 213-3357
팩스: (031) 212-6204
홈페이지: www.hapshin.or.kr
출판사등록번호: 201-25-66350
인쇄처: 삼원인쇄소 (02) 2265-9730

* 본 신학강좌는 전국 여러 교회와 총동문회 및 관련기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암 박윤선의 변증과 기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2024

- 차례 -

◆ 초대의 글 ◆

안두익 목사 (총동문회장, 동성교회 담임목사) ----- 1

◆ 순서 ◆

예배 및 순서 ----- 2-3

◆ 제1강좌 ◆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정암의 이해와 '개혁파 변증'에 대한 정암의 가르침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석좌교수, 조직) ----- 5

◆ 제2강좌 ◆

정암 박윤선의 변증: 칼 바르트 비판 중심으로
박바울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조직) ----- 27

◆ 제3강좌 ◆

어록으로 본 정암 박윤선의 기도론과 실천
정창균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前)총장, 설교학) ----- 49

◆ 부록 ◆

역대 정암신학강좌 진행 내용, 1989~2023 ----- 95

초대의 글

안두익 목사

총동문회장 (동성교회 담임목사)

동역자들을 초대합니다.

영음사에서 나온 '박윤선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이 지난 책인데 박윤선 박사를 아는 88분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분의 삶을 이렇게 많은 분이 다양한 측면에서 진솔하게 썼다는 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박윤선 목사님을 보면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

지금은 박윤선 박사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인간적인 면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합니다. 그분의 많은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붙잡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바른 신학보다는 번영신학의 노예가 되었고, 바른 교회보다는 기복주의에 젖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상실했고, 바른 생활이 아닌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길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는 이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 함께 나와 시대의 아픔을 끌어 앉고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2024년 무르익는 가을에
합신총동문회 회장 안두익 목사

예배 및 순서

1부: 예배 (오후 1:30~2:00)

인도: 도지원 목사(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예수비전교회)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322장
기도	- 김병진 목사 (총동문회부회장, 역곡동교회)
성경	- 암 8:11-14 (인도자)
설교	- '목마름의 시대'
	- 안두익 목사 (총동문회 회장, 동성교회)
축사	- 김학유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축도	- 박병선 목사 (합신총회장)
광고	- 이영래 목사 (총동문회 총무)

2부: 강좌 (오후 2:00~6:10)

1강좌: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정암의 이해와 '개혁파 변증'에 대한 정암의 가르침
(2:00~3:10)

사회	- 이은수 목사 (총동문회 부회장, 화성교회)
강의	-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석좌교수, 조직)

휴식 시간 (3:10~3:30)

2강좌: 정암 박윤선의 변증: 칼 바르트 비판 중심으로 (3:30~4:40)

사회	- 최덕수 목사 (총동문회 부회장, 현산교회)
강의	- 박바울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조직)

휴식 시간 (4:40~5:00)

3강좌: 어록으로 본 정암 박윤선의 기도론과 실천 (5:00~6:10)

- | | |
|----|---------------------------------|
| 사회 | - 오종택 목사 (충동문화 부회장, 만수제일교회) |
| 강의 | - 정창균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前 총장, 설교학) |

광고 및 저녁 식사 (6:10~)

- | | |
|-------|--------------------|
| 광고 | - 이영래 목사 (충동문화 총무) |
| 저녁 식사 | - 지구촌 교회에서 제공 |

<제1강좌>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정암의 이해와 “개혁파 변증”에 대한 정암의 가르침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석좌교수, 조직신학)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강조는 정통파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토대다. 정암(1905-1988)은 **정통파 개혁신학**을 한국 땅에 뿌리 내리게 한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¹⁾ 그의 평생에 걸쳐서 성경의 무오성을 매우 강조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을 하셨다. 이 일과 더불어 그는 개혁파 변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그의 평생 개혁파 변증을 하고, 심지어 - 신약학 교수였다는 정암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놀랍게도 - 개혁파 변증학을 가르치는 일도 하셨다. 이 강연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논의하되, 성경 무오성에 대한 정암의 강조는 너무 명확하므로 간단히 다루면서 정암의 강조점만을 드러내고, 오늘날 미국에서는 물론 우리 땅에서는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는 개혁파 변증으로서의 “전제주의 변증”(presuppositional apologetics)의 변증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전제주의 변증학의 회복과 르네상스를 위한 강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I.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정암의 강조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정통신학을 하는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개혁파 신학자들은 모두 성경이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확(正確)하고 오류(誤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²⁾ 정암

1)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 이승구, “정암(正岩)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안명준 편, 『한국 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서울: 킹덤북스, 2020), 607-51을 보라. 여기 인용된 한부선 (1947), 간하배 (1961), 홍치모 (1993), 허순길 (1996), 정성구 (1989), 신복윤 (1995), 김명혁 (1995), 박형용 (1995), 오병세 (1995), 이상규 교수님의 말들을 참조해 보라.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 이승구, 『교리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3),

은, 그가 평생 존중한³⁾ 헤르만 바빙크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리시는 저자들의 자유와 인격과 특성을 그대로 살려 사용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과오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⁴⁾ 유기적 영감설이 “개혁주의에서 전승해 오는 성경 영감설이다”라고 하신다.⁵⁾ 정암은 “바빙크는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에게 충분한 자유 활동이 있었던 동시에, 기록상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의 전적 동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⁶⁾ 그리하여 성경의 기록은 “전적으로 신적이었고 전적으로 인간적이었다”는 말까지를 인용하여 제시하신다.⁷⁾ 이런 유기적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mechanical inspiration)설과 정암께서 “능력 부여설”이라고 번역한 역동적 영감(dynamic inspiration)설과 대립되는 것이다. 유기적으로 영감된 성경은 “그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는 만전(萬全)적이다.”⁸⁾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온전성이란 정말 모든 의미의 온전성이어서 글자 하나하나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에서 “축자(逐字) 영감”(verbal inspiration)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하였다.⁹⁾ 이를 합해서 전통적으로 “만전(萬全) 축자(逐字) 영감설”이라고 한다.¹⁰⁾ 이것이 교회의 교리(the Church doctrine)였다고 말하는

830-66을 보라.

- 3) 해방되자 만주 봉천에서 1945년 8월 27일에 고향 철산리로 돌아와 6개월 동안 장평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 교회를 장경재 전도사(1918-2000)에게 맡기시고 1946년 2월에 월남하실 때에도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과 흐레이다너스의 『요한 계시록 주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홍치모 교수와 이승구의 논의를 보라(“정암(正岩)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624, n. 93).
- 4) Herman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trans. H. Zylstra (Grand Rapids: Baker, 1977), 102. 또한 바빙크의 *Gereformeerde Dogmatiek* 1,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570-79에 이런 유기적 영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주어져 있다.
- 5)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서울: 영음사, 2003), 39.
- 6)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41.
- 7)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1, 3rd edition (Kamper: Kok, 1967), 406,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41에서 재인용. 최근에 나온 한글 번역판 574쪽에 이 말이 나온다.
- 8)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41.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아주 완전하다”고 표현할 것을 옛어른들은 “만전(萬全)”이라고 표현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9)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50.
- 10) 이에 대한 강조로 다음을 보라.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ed., Samuel G. Crrig (Philadelphia: P&R, 1948), 441, 그 외에도 축자영감을 말하는 420, 423, 425f., 427, 437, 440, 441 *et passim*; Edward J. Young, *Thy Word is Truth* (Grand Rapids: Eerdmans, 1957, 10th Printing, 1978), 49, 59; idem, “Verbal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1),” *Bibliotheca Sacra* 121 (April-June 1964): 117-24; idem, “Verbal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2),” *Bibliotheca Sacra* 121 (Oct. -Dec. 1964):

워필드를¹¹⁾ 따라서 정암도 성경에 대해서 만전 축자 영감설을 주장한다. 정암은 이렇게 말한다.

워필드는 성경의 축자 영감 교리를 가리켜 ‘성경에 대한 교회적 교리’라고도 하였으며, 그는 결론하기를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작하신 하나님의 책이라고 믿어 왔고, 성경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오류가 없는 진리요 또 실패가 없는 권위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작하신 줄로 믿어 왔다”라고 하였다.¹²⁾

이러한 정통교회의 성경관을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 (1) 자유주의 신학과 (2) 신정통주의 신학과 (3) 신복음주의 신학, 그리고 (4) 그 후예들의 신학이다. 정통파 개혁파 신학을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한 정암은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의 독특한 영감으로 된 것으로 정확 무오함을 강조한다. “영감으로 된 것은 정확무오하고 또 그 기록 자체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독자에게 영적 감동을 전달한다.”¹³⁾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께서도 정암에 대해서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에 그렇게 헌신한 분은 이제껏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¹⁴⁾ 1988년 6월 30일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을 때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추모예배에서 그의 오랜

303-10; idem, “Verbal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3),” *Bibliotheca Sacra* 122 (Jan.-March 1965): 16-22; idem, “Verbal Inspiration of the Scriptures (2),” *Bibliotheca Sacra* 122 (July-Sept. 1965): 236-42; 박형룡, 『개혁교의학. 서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이근삼, 『칼빈과 칼빈주의』 (1972), 한국의 개혁주의자 이근삼 전집 1권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117; 신복윤, “성경의 영감과 모오”, 『신학정론』 1/1 (1983): 49-72; 김상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개혁주의 성경관 연구”, 『총신대 논총』 22 (2003): 159-78; 김상훈, “성경의 본질과 교육적 특성”, 『신학지남』 86/4 (2019년 12월): 81-103;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변종길, “개혁주의 성경관”, 『개혁주의를 말한다』 (서울: SFC, 2011), 32-52; 이승구, 『교리사』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23), 859.

11)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105-28, 420, 422, 440, *et Passim*.

12)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50. 여기서 정암은 Warfield, *Studies in Tertullian and Augustine*, in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vol. 4, 109를 인용하는 것이다.

13)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38.

14) 홍정길, “사명 감당을 선포할 때의 도전, 박윤선 목사와 나”, 『빛과 소금』 (1988년 8월): 197.

동료라고 할 수 있는 한부선(Bruce Hunt) 목사님은 자신들의 만남과 우정과 사역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박 박사는 성경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를 본받읍시다”는 말로 결론 맺었다고 한다.¹⁵⁾ 이처럼 정암은 성경의 무오성을 확신하였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정암을 평생을 그 무오한 성경을 (1) 주석하고, (2)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3) 그 무오한 성경에 근거해서 목회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¹⁶⁾

그런데 정암은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성경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신다.¹⁷⁾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에 성경을 무오하다고 믿는다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自證)”이라고 그의 여러 글에서도 강조하셨고, 거의 모든 시간에 강조하시던 그 목소리가 귀에 쟁쟁(錚錚)하다. 성경 자체에 의존하여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것이기에 정암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개혁파적 성경관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난제점들을 성경 자체에 의지하여 해석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며, 또한 혹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 줄 믿는다.”¹⁸⁾ 그래서 최대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시다가도 잘 알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놓아두신다. 정암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석 작업을 시작한¹⁹⁾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하시면서도 1968년 개정 3판 서문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알 수 없는 말쑼에 대하여는 두려운 생각으로 그대로 보류하여 두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²⁰⁾

15) 서영일, “To Teach and to Reform: The Life and Times of Dr. Yune Sun Park,”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2), 장동민 역,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389에서 서영일 박사가 회고하면 하는 말을 재인용하는 것이다.

16) 정암 자신의 이점에 대한 강조로 이승구, “정암(正岩)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608-609, n. 5를 보라.

17)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56.

18)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56.

19) 정암이 첫 번째 유학(1934년 9월-1936년 8월)을 마치고 귀국한 후 평양신학교 원어 강사와 고등성경학교 시간 강사를 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종교교육부 편집실에서 근무하면서 쓴 『고린도후서 주석』은 실질적으로 정암의 작품이지만 박형룡 박사의 이름으로 나온다(1938년 6월 출간). 정암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두 번째 미국 유학(1938년 8월-1939년 여름) 이후 가족들과 함께 잠시 일본에 머물다가 만주로 가서 1940년 3월에 목사로 임직하고 오가항(우지항)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만주신학원(현 동북신학원)에서 아마도 1941년 4월부터 신약학을 교수하시다가 아마도 1943년 7월에 사임하고 봉천에서 80Km 떨어진 안산(鞍山)에 가서 머문 기간(1943년 7월 이후부터 해방 때까지 2년여 기간)에 시작하여 결국 1949년 봄에 출간하게 된다.

물론 정암은 성경의 여러 난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마음에서 설명하신다.²¹⁾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을 창세기 15:13과 사도행전 7:6에서 400년이라고 하고, 출애굽기 12:40과 갈라디아서 3:17에서 430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라이트푸트가 말한 바와 같이 430년은 모든 수를 밝혀 말한 방식으로 쓴 것이고, 400년이라고 쓴 것은 약수 계산으로 쓴 것이라고 하신다.²²⁾ 또한 열왕기상 4:26에는 솔로몬의 말의 외양간 수가 4만이라 하였는데, 역대하 9:25에는 4천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1) 유다 전국에 있는 것은 4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4천이라고 보든지, (2) 하나가 10필을 수용하는 외양간이면 4천 개의 외양간이 4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3) 필사자들의 사본 상의 실수로 볼 수 있다고 한다.²³⁾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조화롭게** 설명하려고 하되 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놓아두신다. 그의 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 강하게 드러난다. 정암은 “성경 자체가 성경의 전체적 무오류를 증언하고 있다(마 1:22; 5:18; 눅 24:25-27; 계 22:18-19)”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면 그 말씀 자체가 스스로 증거한 내용이 가장 권위 있는 근거일 것”이라고 하신다.²⁴⁾

둘째로 이렇게 성경의 오류 없음은 “원본 성경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²⁵⁾ 요한 칼빈(1509-1564)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특히 찰스 핫지(1797-1878), A. A. 핫지(1823-1886), B. B. 워필드(1851-1921), 게할더스 보스(1862-1949), 에드워드 제이 영(1907-1968), 요한 머리(John Murray, 1898-1975), 코넬리우스 반틸(1895-1987) 등 개혁신파 정통주의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신다. 그러므로 사본 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본에 있는 것이다.²⁶⁾ 그렇지만 다른 문

20)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개정 3판 (서울: 영음사, 1968), 서문.

21) 그의 주석 곳곳에서 그렇게 하신다, 특히 박윤선, 『개혁신주의 교의학』, 56-63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12가지 들어 예시해 주신다.

22) 박윤선, 『개혁신주의 교의학』, 61.

23) 박윤선, 『개혁신주의 교의학』, 60.

24) 박윤선, 『개혁신주의 교의학』, 66.

25) 박윤선, 『개혁신주의 교의학』, 41 (“성경 원본에 있어서 무오함을 말한다.”), 56 (“물론 이것은 원본 성경(auvto,grafa)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입장이다.”), 66 (“성경이 그 원본에 있어서 정확무오하다는 것은 사도 이후 정통교회가 의심 없이 전승해 내려온 진리다.”)

서들의 전달 과정과 비교하면 사본상의 차이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²⁷⁾ 따라서 신약성경의 사본들은 상당히 믿을 만하며²⁸⁾ 그로부터 원본에 가까운 것을 추구해 갈 수 있고,²⁹⁾ 우리는 그 원본이 무오하다고 믿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암의 성경관은 이전의 정통신학자들의 성경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취해온 그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암이 너무 존중했던 게할더스 보스의 영감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이다. 보스는 자신이 “성경신학자로서 사심 없이 만전 영감(plenary inspiration) 교리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며,³⁰⁾ “부분 영감의 개념은 성경이 자체의 성격에 대해 말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은 현대의 꾸며낸 이야기(figment)”라고 한다.³¹⁾ 그러므로 “성경 자체의 의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곧 만전 영감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영감된 것이 없다”는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분 영감 개념을 온전히 거부한다.³²⁾ 이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음을 아주 분명히 한다. 그래서 보스는 자신이 말하는 성경신학, 즉 특별계시의 역사의 원칙을 (1) “계시의 무오성”과 (2) “계시의 기본사역의 객관성”과 (3) “만전 영감”으로 제시하였고,³³⁾ 정암도 이런 입장에서 축자영감 교리가 전통 교회의 성경관임을 역설하였다.³⁴⁾

이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의 상황에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로, 이전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관, 특히

26) 특히 John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Philadelphia: P&R, 1960)을 보라.

27) 이를 잘 드러낸 책으로 존더반 출판상을 받아 출간된 Robert Laird Harris, *Inspiration and Canonicity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57)을 들 수 있다.

28) 이런 태도를 잘 드러내는 문서로 F. F. Bruce, *Are the New Testament Documents Reliabl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43). 안타까운 것은 『신약성경의 문서들은 믿을 만한가?』로 번역되어야 할 것을 『신약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홍찬혁 역 (서울: 좋은씨앗, 2016)로 옮겨진 것이다.

29) 이것을 전통적으로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고 해왔다. 사본들을 비교해서 원본에 가장 가깝게 본문을 찾아가려는 작업이다. 이를 “하등 비평”(lower criticism)이라고 표현한 옛 선배들의 용어 사용대로 사용하는 정암의 용례도 보라. 박윤선, 「성경 신학」, 11판 (서울: 영음사, 1987), 제2장 중에서.

30)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13= 이승구, 역, 『성경신학』 (서울: CLC, 1985, 개정역, 2000), 30.

31) Vos, *Biblical Theology*, 13=『성경신학』, 30.

32) Vos, *Biblical Theology*, 13=『성경신학』, 30.

33) Vos, *Biblical Theology*, 11-13=『성경신학』, 28-30.

34) 곳곳에서 잘 드러나지만 특히 박윤선, 「성경 신학」, 21-27을 보라.

1881년에 A. A. 핫지와 워필드가 쓴 “영감”이라는 논문에서³⁵⁾ 했던 그들의 주장은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성경관을 도입시킨 것이라는 어니스트 샌딘(Ernest Sandeen, 1908-1997)과 잭 로저스와 도날드 맥킴의 주장,³⁶⁾ 소위 “샌딘의 제안”(Ernest Sandeen Proposal)과 “로저스-맥킴의 제안”(the Rogers and McKim Proposal)은 이런 제안이 나오기 전에 활동하셨던 이전 정통신학자들과 정암에 의해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논박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정암은 우드부리지와³⁷⁾ 발머 교수의 입장에³⁸⁾ 동의했을 것이다. 사실 이 논의는 필자가 학생 시절인 1983년에 나온 것이라 주로 그 이전에 글을 썼던 정암이 이 논의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 논란에 대해 언급한 일은 많지 않지만, 계속된 정암의 강조점은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암은 샌딘과 로저스 테제에 대한 바른 복음주의자들의 논박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우드부리나 발머에 입장에서 논의를 분명해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암은 여러 곳에서 벵겔의 글에 동의하면서 논의하고 있는데, 벵겔도 일부 성경 유오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잘 점검해 보면 성경의 완전한 영감을 믿고 주장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논문도 있다.³⁹⁾ 정암도 이런 해석

35) Reprinted in A. A. Hodge and B. B. Warfield, *Inspiration* (Grand Rapids: Baker, 1979).

36) Cf. Ernest Sandeen, *The Origins of Fundamentalism* (Philadelphia, 1968), 14; idem, *The Roots of Fundamentalism* (Grand Rapids: Baker, 1978), 128; Jack Rogers and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 Historical Approach* (New York: Harper & Row, 1979), especially 304. 이들이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로 다음 분들의 글도 보라. Theodore P. Letis, “B. B. Warfield, Common Sense Philosophy and Biblical Criticism,” *American Presbyterians* 69 (1991): 175-90; Donald G. Bloesch, *Holy Scriptur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94): 35, 307, n. 18; Harriet A. Harris,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s* (Oxford: Clarendon, 1998), 30; and John Perry, “Dissolving the Inerrancy Debate: How Modern Philosophy Shaped the Evangelical View of Scripture,” *JCTR* 6/3 (2001): par. 20. Perry는 찰스 핫지 이후로 “무오성(inerrancy)이라는 말이 매우 구체적인 무오성(detailed inerrancy)을 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7) John D. Woodbridge, *Biblical Authority: A Critique of the Rogers and McKim Proposal* (Grand Rapids: Zondervan, 1982), especially 82-83.

38) John D. Woodbridge and Ralndall H. Balmer, “The Princetonians and Biblical Authority: An Assessment of the Proposal of Ernest Sandeen Proposal,” in D. A. Carson and John D. Woodbridge, eds., *Scripture and Truth* (Grand Rapids: Zondervan, 1983), 251-79.

에 동의했을 것이다.

둘째로, 이전의 정통주의자들인 핫지나 워필드나 영과 같이 정암도 소위 말하는 성경 무오성(Biblical inerrancy)과 성경 무류성(Biblical infallibility, 이를 어떤 분들은 ‘불오’(不謬, Biblical infallibility)라고 번역하려고 한다⁴⁰⁾)이라는 용어를 의미의 차이가 전혀 없이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⁴¹⁾ 정암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은 그 서술에 있어서 그 무엇에 관해 언급하였어도 정확(inerrant)하고, 그 어떤 자료로써 우리를 가르치든간에 무오(infallible)하다. 이것은 성경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지 연구에서도 그렇게 드러난다.”⁴²⁾ 이것이 정통신학의 입장이다. 무오성(inerrancy)은 인정하지 않고 주로 풀러신학교와 관련해서 나온 “성경의 중심 주제가 아닌 그 주변 문제들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는 무류성(또는 ‘불오성’)(infallibility)을 옹호한다는 말은 사실 정통신학에서는 상당히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다. 풀러신학교와 관련한 이런 논쟁은 소위 신복음주의를 의심의 눈길로 보게 하는 데 기여한 논쟁이고, 이전 정통신학자들은 성경의 무오성(inerrancy)이라는 말과 무류성(infallibility)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무오를 강조했다. 그것이 정암을 비롯한 정통신학의 입장이다.

셋째로, 1977년에 ‘성경 무오 국제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 1977)가 조직되어 ‘시카고 무오 성명’(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 1978)과 ‘시카고 성경 해석학 성명’(The

39) Alan J. Thompson, “The Pietist Critique of Inerrancy? J. A. Bengel’s *Gnomon* as a Test Case,”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7/1 (March 2004): 71-88 (https://etsjets.org/wp-content/uploads/2010/06/files_JETS-PDFs_47_47-1_47-1-pp071-088_JETS.pdf).

40) 그 대표적인 예로 목창균 교수님의 사용 용례를 보라. Cf. 목창균, “성경 무오에 관한 논쟁”: <http://www.thetruthlighthouse.org/%ec%84%b1%ea%b2%bd-%eb%ac%b4%ec%98%a4%ec%97%90-%ea%b4%80%ed%95%9c-%eb%85%bc%ec%9f%81/> 또 한 김은수 교수의 번역도 보라. 김은수, 『칼빈과 개혁신앙』 (서울: SFC 출판부, 2011), 58, 각주; idem, 『칼빈과 개혁신앙』 (서울: SFC 출판부, 2011), 77-78.

41) 워필드(1851-1921) 때에는 이런 차이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에드워드 제이 영(Edward J. Young, 1907-1968)은 ‘무오’라는 말과 ‘무류’라는 말을 혼용해 사용한다(*Thy Word is Truth*, 51, 76, 88, 89, 92, 113, 117, 144, 148). 이점에 대한 언급으로 이승구, 『교리사』, 861을 보라.

42)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41. 실제 이 번역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무오’라고 번역하는 것을 ‘정확하다’고 번역하셨고, 우리가 ‘무류’(어떤 분들이 ‘불오’)라고 번역하는 것을 ‘무오’라고 번역하셨다. 정암을 비롯한 정통신학자들에게는 ‘무오’와 ‘무류’가 상호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었다. 이를 벗어난 후대의 논의가 문제이다.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Hermeneutics, 1982)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가장 완전무결한 무오를 주장하는 것이 정암 등이 가진 정통파적 견해라는 것도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암의 견해는 성경의 '전적 무오'를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인 칼 헨리(Carl Henry, 1913-2003), 그리슨 아처(Gleason L. Archer, Jr., 1916-2004), 케네트 캔저(Kenneth S. Kantzer (1917-2002), 로버트 프레우스 (Robert David Preus, 1924-1995), 패커(J. I. Packer, 1926-2020), 노르만 가이슬러(Norman Geisler, 1932-2019), R. C. 스프롤(R. C. Sproul, 1939-2017), 로버트 갓프리 (W. Robert Godfrey, 1945), 도널드 카슨 (Donald Arthur Carson, 1946), 존 파이버그(John Samuel Feinberg, 1946) 등의 신학자들과 함께 프란시스 쉐퍼 (Francis A. Schaeffer, 1912-1984), 해롤드 린셀(Harold Lindsell, 1913-1998), 제임스 보이스 (James M. Boice, 1938-2000), 존 맥아더(John Fullerton MacArthur Jr., 1939)를 비롯한 복음주의 목회자들 200여명 이상이 서명하여 성경 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을 하셨던 분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제한된 주장을 하면서 성경은 그 중심적 주제에서만 틀림이 없다는 소위 무류성을 주장하는 클락 피녹(Clark Pinnock, 1937-2010), 잭 로저스(Jack Rogers, 1934-2016), 다니엘 풀러(Daniel Fuller, 1925-2023), 그리고 시카고 선언을 비판하는 로저 올슨 (Roger Eugene Olson, 1952)이나⁴³⁾ 피터 엔스 (Peter Eric Enns, 1961)⁴⁴⁾ 등의 주장과 입장을 달리하시는 것이다. 성경 무오에 대한 시카고 선언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 서명에 같이 하지 않으셨고, 이 서명에 참여한 분들이 다 정암보다 다 연하의 분들이시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들과 입장을 같이 하셨다는 말이다.

43) Roger Olson, "Is Real Communication as Perfect 'Meeting of Minds' Possible? Some Radical Thoughts about Words like 'Inerrancy'" (17 Feb 2016).(<https://www.patheos.com/blogs/rogereolson/2016/02/is-real-communication-as-perfect-meeting-of-minds-possible-some-radical-thoughts-about-words-like-inerrancy/>)

44) Cf. Peter Enns, "Science, Faith and the Chicago Statement of Biblical Inerrancy" (2014) (PDF). BioLogos.

II. 다른 변증 방법들의 문제에 대한 정암의 비판

정암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으로 변증에 있어서 **개혁파적 입장에 충실한 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⁴⁵⁾ 이는 모든 면에서 개혁파 신학의 충실하고자 하는 정암의 입장으로서 매우 당연한 것인데, 정확히 같은 주장을 하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Ph. D. in philosophy, 1927) 처음으로 모교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변증학 강의를 바로 이주장, 즉 변증도 개혁파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고(1928년 가을 학기-1929년 봄 학기),⁴⁶⁾ 평생 그런 입장에서 개혁파 변증학을 주장해 온 코넬리우스 밴틸(Cornelius Van Til, 1895-1987)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암의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유학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여러 과목을 들으면서 자유롭게 연구하는 개인적 연구 기간이었던) 1938년 가을 학기부터 1940년 가을 학기(1938-1940) 기간 동안 정암이 여러 어학 과목 외에 변증학으로 8학점을 수강하고 또한 4학점짜리 논문을 쓰시면서 밴틸에게서 공부한 것 때문에 정암이 밴틸과 같은 입장을 지니게 되었는지,⁴⁷⁾ 아니면 철저한 개혁파 신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개혁신학을 변증학 분야에서도 철저하게 유지하려던 밴틸에게서 더 배울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⁴⁸⁾ 물론 이 둘은 서로

45) 후에 잘 나타나지만 이런 말 자체가 Cornelius Van Til의 강조점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정암이 얼마나 밴틸에게 충실한지가 잘 드러난다.

46) 이에 대해서는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서울: 살림, 2007), 22, 24-26을 보라. 이 두 학기는 변증학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시기**라고 해야 한다.

47) 흥미로운 것은 그가 처음 웨스트민스터에 학생을 갔을 때인 **1934년 9월부터 1936년 5월**에는 특별학생(special student)으로 있던 1935년 봄에 “칼빈의 신학”과 이를테면 신학석사 과정을 하던 **1935년부터 1936년까지**는 “위기 신학”(즉, 바르트와 부른리의 신학 비판)만을 신약학 이외의 과목에서 수강했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박윤선의 Transcript, 1934-1985, 1935-1936”에 근거한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34-35; 그리고 이에 근거한 이승구, “정암(正岩)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616-17을 보라. 위기신학은 분명히 밴틸에게서 들었을 것이니 이때부터 밴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밴틸과 변증학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는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시절인 1938년-1939년에 이루어진다.

48) 필자가 정암에게서 가르침을 받던 1979년-1981년(학부)과 1982년-1987년(합동신학원)에 직접 이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그때는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변증학에 대한 고찰이 학생 때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연결된 것이고, 정암의 마음에 있던 것에 대한 질문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두 분이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계시는 “하늘”(heaven)에 가서라야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코넬리우스 뱌틸에게서 변증학의 가르침 받았던 정암은 본인의 영역인 신약학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변증학도 가르치었고,⁴⁹⁾ 항상 변증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는 점이다. 이때 정암은 뱌틸의 학생답게 개혁신학에 일치하는 변증학, 전제주의 변증학(Presuppositional apologetics)을 강조하고 가르치셨다.

정암은 “변증의 방법론”이라는 <특별 참고> 논의 중에서 (1) 신플라톤 주의자인 플로티노스(Plotinus, 205-270)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쉘라이어마허(Schleiermacher, 1768-1834)의 체험주의적 논의를 “경험주의적(Experientialism) 변증 방법”이라고 부르면서 논박하고,⁵⁰⁾ (2)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실용주의에 근거한 논의를 “실용주의적 변증 방법”이라고 부르면서, “실용주의는 신학적 진리의 식별에 있어서 주관주의적”이고, “우연주의적”이라는 논거에서 거부하신다.⁵¹⁾

또한 (3) 계속해서 증거(evidence)를 제시하는 증험주의(Evidentialism, 증거주의, 또는 스프롤 등의 이른바 ‘고전적 변증’⁵²⁾ 방법)는 “그 제시하는 사실들의 객관성과 공적인 성격 때문에 유익”하지만,⁵³⁾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는 신앙상 유익을 주지만 불신자에게 믿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명확한 사실을 지적한다. 즉, 믿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증거 제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 증거를 가지고 불신(不信)의 의지에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신론적 진리 해석이 전제되어야 불신자에게도 신앙을 줄 수 있다.”⁵⁴⁾ 유신론적 진리 해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변증은 사실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후에 말하려는 전제주의 변증 방법이 진정한 변증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신론적 진리가 전제되지 않고도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49) 고신에서 상당히 많은 과목을 가르치실 때도 그러하셨고, 합동신학원에서 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신약학도 가르치시면서 변증학 과목도 가르치시던 1982년을 기억한다.

50)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83f.

51)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84f.

52) Cf. R.C. Sproul, John Gerstner, and Arthur Lindsley, *Classical Apologetic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84).

53)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86.

54)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86.

은 사실 불신자의 관점과 “타협하여 사실을 중립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⁵⁵⁾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따라서 그런 논증은 무효로 돌아간다.”⁵⁶⁾

이 증험주의, 즉 고전적 변증 방법은 “자연인의 영적인 부지를 무시한” 것이고,⁵⁷⁾ “무모한 타협주의 변증 방법”으로⁵⁸⁾ 천주교회의 변증 방법이고, 이전 성공회의 버틀러 감독(Bishop Butler)이 제시한 알미니우스주의적 변증 방법으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일종의 중립 지대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의 접촉점에 근거한 논의가 성립하여 믿게 되고 불신자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의 신의식과 하나님 사이에는 안전한 다리가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⁵⁹⁾

사실 코넬리우스 밴틸은 이런 변증 방법을 토마스주의적이고-버틀러적인 변증 방법(Thomistic-Butler type of approach to apologetics)이라고 말하는 일이 많이 있다.⁶⁰⁾ 이런 변증은 결국 기독교적 입장에 충실하지 않은 것, 즉 비성경적 형태의 변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⁶¹⁾ 밴틸은 변증가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론은 자연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autonomy)을 돌리기 때문이고, 결국 “추론의 의미 자체를 파괴하는 원칙들의 용어로 추론의 방법을 발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⁶²⁾ 정암도 밴틸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면서 이런 변증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결국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한다.

55)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99.

56)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99.

57)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86.

58)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87.

59)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90. 이런 방법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서울: 살림, 2007), 130-41을 보라.

60) Cf. Van Til, “Response to Dooyeweerd,” 90.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천주교 변증과 알미니안 변증을 묶어서 말하고 있다. Cf. Van Til, “Response Knudsen,” 303.

61) Van Til, “Response to Dooyeweerd,” 124.

62) Van Til, “Response to Dooyeweerd,” 124.

III. 전제주의 변증과 전제주의 변증 방법

그래서 정암은 코넬리우스 반틸이 정식화하여 제시한 전제주의적 변증 방법을 진술하고,⁶³⁾ 이것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변증 방법이 된다고 강하게 말한다. 그러므로 정암은 반틸을 상당히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⁶⁴⁾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사실들을 하나님의 해석대로 (그러나 성경적 해석대로) 제시하는 방법이다.”⁶⁵⁾ 정암은, 반틸과 함께 불신자가 억누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신의식(神意識, *sensus deitatis*, or *sensus divinitatis*)이 접촉점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불신자가 그 신의식을 불의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효과를 낸다”고 한다.⁶⁶⁾

그러므로 진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변증 방식은 결국 기독교 신학 전체를 전제하는 변증 방법이 된다. 최소한도로 말해도 (1)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2)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하고서 변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전제주의(presuppositional) 변증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신학에 철저한 변증이라는 뜻에서 “개혁파 변증”이라고 하였다.⁶⁷⁾ 이 세상에 신자와 불

63)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90-100.

64) 이점을 인정하는 이전 논문으로 이전 논문으로 2004년에 있었던 16차 정암신학 강좌에서 발제한 정승원 교수님의 논문 “박윤선 박사의 변증학 고찰: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 개념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정승원 교수는 반틸이 계시 전체를 생각한데 비해서 정암은 성경으로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의심의 눈길로 보지만 구체적 설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드러내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65)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99.

66)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90.

67) “개혁파 변증학”이라는 용어와 이를 바른 기독교 변증학으로 생각하는 반틸의 입장에 대한 진술로 다음을 보라. Cornelius Van Til, “Response to Dooyeweerd,” in E. R. Geehan, *Jerusalem and Athens: Critical Discussions on the Philosophy and Apologetics of Cornelius Van Til*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1), 98, 125; idem, “Toward A Reformed Apologetics” (a pamphlet in 1972). 이 글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반틸 web page에 있다(<http://www.wts.edu/bookstore/vantil/summary.htm>). 또 때로 그는 “종교개혁적 변증학”(reformational apologetics)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Van Til, “Response to Dooyeweerd,” 113).

웨스트민스터에서 M. Div.를 하고(1976), 1980년에 Th. M.을 하고 (이때 석사 논문이 후에 *Paul's Two-Age Construction and Apologetics* [1985; rep.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0]으로 출판됨),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신학, 철학, 역사의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로 박사학위를 하고(1992), 조지아 주 ‘룩 아웃 마운틴’(Lookout Mountain, GA)에 있는 커버넌트 칼리지(Covenant College)에서 학제간 연구를 1993년부터 가르치다 명예교수로

신자가 순수 중립적 사실을 가지고 논의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뉘틸과 정암은 계속해서 순수 중립 사실(*bruta facta*)은 없다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한다. 신자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며, 불신자는 불신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해석 사이에는 반립(反立, Anti-thesis)이 있게 된다. 이는 적당히 피하여 갈 수 있는 반립이 아니고, 아주 철저한 반립이어서 불신자에게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설득할 길은 없다.

그러므로 전제주의 변증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신자의 불신자의 이 반립**을 드러내어 보이면서 각자의 입장을 철저히 하여 나타나는 종국을 보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자의 자율주의적 관점과 그와 반립되는 신자의 관점을 계속하여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이 전제주의 변증의 방법의 첫째 일이 된다. 그 과정 중에서는 적어도 (1) **기독교의 입장이 손상되지 않은 형태로 전해져서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주의 변증의 일차 목표다. 그 과정에서 복음을 순수한 형태로 들을 뿐만 아니라 (2) 불신 입장이 자신이 보기에는 자율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도록 하는 간접적 효과도 지닌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불신자의 믿지 않으려는 의지가 사라지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불신자는 믿지 않으려는 의지로 모든 것을 왜곡시켜 제시한다).

그런데 복음 기독교의 체제를 제시받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믿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3)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는 성경의 말씀이 모두 합리적인 맥락으로 서로 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⁶⁸⁾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합리적”(rational)이라는 말은 그가 믿기 이전에 사용하던 “합리적”(rational)이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불신자가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말과 이제 중생한 신자가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의미의 말이다. 불신자는 복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합리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불신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전 1장).

있는 윌리엄 데니슨은 보스적인 종말 개념에 철저한 뉘틸적인 변증학을 개혁파 변증이라고 하기도 했다. Cf. William Dennison, *In Defense of the Eschaton: Essays in Reformed Apologetics*, ed., James Douglas Baird (Eugene, Ore.: Wipf & Stock, 2015).

68) 박윤선, 『개혁주의 교의학』, 98.

그래서 불신자의 관념 체계에 근거해서 불신자는 기독교적인 것을 비합리적인 (irrational)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역사하심에 의해서) 믿게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전 1:25). 참신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최고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때 그는 달라진 합리성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다. 전제가 달라지고(“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ta. avrcai/a parh/lqen(ivdou. ge,gonen kaina,]- 고후 5:17),⁶⁹⁾ 보는 관점 전체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밴틸은 이와 같은 전제주의 변증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기본적인 변증학이 제시되고,⁷⁰⁾ 희랍 철학의 입장과 기독교의 입장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그 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지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제시된 기독교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것과 대조되는 희랍 철학의 결과를 보도록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고,⁷¹⁾ 칸트의 철학적 자율주의 입장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입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대조하면서 그 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지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제시된 기독교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것과 대조되는 칸트 철학의 결과를 보도록 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⁷²⁾

69) 이 구절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계”(kainh. kti,sij)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논의로 Geerhardus Vos, *Pauline Eschatolog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30; reprint, 1979), 이승구 오광만 역, 『바울의 종말론』 (서울: 엠마오, 1988)와 이에 근거한 이승구,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 고린도후서 5:17의 맥락에서”. 한국성경신학회 2021년 봄 발표회 발제 논문=『교회와 문화』 46 (2021년 8월 31일): 49-97을 보라.

70) 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adelphia: P&R, 1955, Revised, 1967). 이것을 신국원 교수께서 번역하셨다. 『변증학』 (서울: CLC, 1998), 최근판 (서울: P&R, 2012).

71) Cornelius Van Til,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 (Phillipsburg, NJ: P&R, 1969), 14-43와 『변증학』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도 보라. 또한 다음도 보라: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greek-philosophy-part-i-part-2-of-28>;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greeks-and-our-relation-to-them-part-1-of-28>.

72) Cornelius Van Til,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 (Phillipsburg, NJ: P&R, 1980), 이승구 역, 『개혁신앙과 현대 사상』 (서울: 엠마오, 1984; 개정역. 서울: SFC, 2009), 제3장; Van Til,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 106-15;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immanuel-kant-part-10-of-28>;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modern-theology-part-3-part-14-of-28>.

잘못되고 타협한 기독교와 성경적 기독교를 대조시켜 보여 주는 것도 그의 작업의 하나였다. 중세 천주교회의 입장이 어떤 결과를 내는 지를 드러내면서 순수한 기독교와 대조하고,⁷³⁾ 현대 천주교의 입장과 참 기독교를 대조해 보여 주기도 하고,⁷⁴⁾ 폴 틸리히와 리처드 크로너의 입장과 성경적 기독교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어 주기도 하고,⁷⁵⁾ WCC적 교회 연합 운동과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 연합 운동을 대조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⁷⁶⁾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에 대한 좀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전제주의적 변증의 시도가 기독교와 바르트주의의 대조를 보여 준 것,⁷⁷⁾ 사신(死神) 신학에 대한 변증,⁷⁸⁾ 후기 하이데거와 신학의 문제를 드러낸 것,⁷⁹⁾ 그리고 새로운 해석학에 대한 변증까지,⁸⁰⁾ 그리고 개혁파 내에서 잘못된 신학 논의에 대한 논박까지가⁸¹⁾ 반틸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암도 귀국하여 오면서부터 한편으로는 성경을 주석하는 일에 힘쓰면서

73)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8장; Van Til,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 44-64; Van Til,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 제2장;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thomas-aquinas-part-8-of-28>;

74) Van Til,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개혁신앙과 현대 사상』, 제5장.

75) Van Til,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개혁신앙과 현대 사상』, 제4장.

76) Van Til, *The Reformed Pastor and Modern Thought*=『개혁신앙과 현대 사상』, 제6장;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god-is-dead-theology-part-16-of-28>.

77) Cornelius Van Til, *The New Modernism* (Philadelphia: P&R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idem, *Christianity and Barthianism* (Nutley, NJ: P&R, 1962); "Christ and Human Thought: Barth & Modern Theology - Part 19 of 28"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barth-modern-theology-part-19-of-28>);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critique-of-neo-orthodoxy-part-1-part-20-of-28>;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critique-of-neo-orthodoxy-part-2-part-21-of-28>;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karl-barth-part-1-part-17-of-28>;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karl-barth-part-2-part-18-of-28>.

78) Cornelius Van Til, *Is God Dead?* (Phillipsburg, NJ: P&R, 1960).

79) Cornelius Van Til, *The Later Heidegger and Theology* (Philadelphia: P&R, 1964).

80) Cornelius Van Til, *The New Hermeneutic* (Phillipsburg, NJ: P&R, 1974).

81)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13장;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berkouw-er-i-part-22-of-28>; <https://wm.wts.edu/listen/christ-and-human-thought-berkouw-er-ii-part-23-of-28>; <https://wm.wts.edu/listen/history-and-nature-of-apologetics-new-evangelicalism-part-4>.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제주의적 변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것과 성경적 기독교를 대조시켜 그 차이를 정확히 보도록 하는 일을 시작하셨고,⁸²⁾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의 전통적 사상에 대한 변증도 시도하셨으니 그 백미 중의 하나가 주역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서 논의였다.⁸³⁾ 비슷한 시도를 한 이정용 교수(1935-1996)의 해석과⁸⁴⁾ 비교하면, 희랍적 이원론의 존재신학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한 과정신학의 ‘과정’이 궁극적 실재를 표현하는 적당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직선적 시간관과 궁극적 실재인 창조성을 비판하며, 순환적 시간관과 변화를 궁극적 실재로 하는 ‘역의 신학’이 더 타당성을 가진 신학적 사유라고 주장하는 이정용에⁸⁵⁾ 비해서 정암이 얼마나 성경적 기독교에 철저히 서 있으면서 다른 사상을 대조해 보면서도 변증하는지 진정한 전제주의 변증의 예를 잘 볼 수 있게 한다.

82) 박윤선, “Karl Barth의 성경관에 대한 비판”, 『신학지남』 19/4 (1937년 7월): 31-34; “Karl Barth의 계시관에 대한 비판”, 『신학지남』 19/5 (1937년 9월): 32-35, 77

83) 박윤선, “주역 사상에 대한 비판”, 『신학지남』 37/3 (1970년 가을호): 19-36.

84) Jung Young Lee, *The Theology of Change: A Christian Concept of God in an Eastern Perspective* (New York: Orbis Books, Maryknoll, 1979), 이세형 역, 『역의 신학: 동양의 관점에서 본 하느님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정용, 『역과 기독교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Jung Young Lee, *Embracing Change: Postmodern Interpretations of the I Ching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Scranton: University of Scranton Press, 1994); 이정용, 『역과 모퉁이의 신학: 육성으로 듣는 이정용 박사의 삶과 신학 이야기』, 임찬순 역음 (서울: 동연, 2023), 6장.

85) 이런 이정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더 논의하려고 한 시도들로 다음을 보라. 신재식, “이정용의 신학”, 『한국문화신학논문집』 9 (2006): 307-32; 황필호, “기독교와 주역: 이정용의 변화신학을 중심으로”, 『우원사상논총』 6, 41-68; Kevin Park, “Emerging Korean North American Theologies: Toward a Contextual Theology of the Cross,” Ph.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2); 최현주, “역(易) 해석을 통해 본 이정용의 신학적 사유- 김홍호의 역 신학 비평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3/3 (2021): 63-86.

IV. 마치면서 하는 제언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진 후에는 한국 장로교회의 정통주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직, 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질 때 코넬리우스 밴틸은 교수들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 중 하나였고,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야 창립 교수단(the founding faculty)에 합류하였다.⁸⁶⁾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점차 밴틸적 특성을 학교의 큰 특색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밴틸을 따르는 사람들(Vantillian)이라는 용어도 나타나게 되었다.⁸⁷⁾ 웨스트민스터 안에 밴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또 웨스트민스터 밖에서도 밴틸의 변증 방법을 따라서 작업하려는 분들이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코넬리우스 밴틸의 전제주의 변증을 가장 잘 드러내며 실제로 시도한 사람들로 과연 누구를 들 수 있을까? 초기 한국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유학생 중에서 참으로 전제주의 변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밴틸을 잘 배웠던 정암은 참으로 헌신된 전제주의 변증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밴틸이 말하려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고, 실제로 한국 상황에서 밴틸과 같은 방식으로 변증하였다. 웨스트민스터에 두 번째 유학하던 시기 이던 1939년 4월에 미국 장로 교계지(*The Presbyterian Guardian*) 지에 실린 정암의 글은 정암이 밴틸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으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변증하려고 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중 한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즉, 코넬리우스 밴틸은] 기독교 유신론을 철저히 철학적으로 변증함으로 칸트와 플라톤의 체계에 포함된 모든 인간의 체계가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밴틸 박사야말로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위대한 신학자는 비기독교적 공격에 대하여 대항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의 체계는 단순한 인간의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제시된 방어 체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다. 주께서 한국에서 그의 진리를 방어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를!⁸⁸⁾

86)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승구, 『코넬리우스 반틸』 (서울: 살림, 2007), 30-33을 보라.

87) 한동안 웨스트민스터 안에서는 이와 좀 다른 입장을 “암스테르담 학파”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귀국해서 한동안은 일제하 상황이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없어서 만주 심양(봉천)에서 조금(1941년 4월-1944년 7월?),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부산에서 한동안 (1946년 6월부터 8월의 진해 신학강좌부터, 그리고 고려신학교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1946년 9월 17일부터 1960년 9월 24일까지 14년) 그리고 총신에서 (1962년 11월-74년 11월까지 12년, 그리고 1979년 3월-1980년 봄), 그리고 합신에서 (1980년 11월 11일-1988년 6월 30일까지 8년) 이런 개혁신학에 근거해 성경 주석을 쓰시며(1943년부터 계시록 1949년 출간-1979년 동안 35년 이상의 기간),⁸⁹⁾ 개혁파 관점에서 신약학과 전제주의 변증을 가르치고 전제주의 변증을 시도한 것이 정암의 생애였다. 합신이 시작하여 필자가 학생으로 있을 때만 해도 2학점짜리 변증학 과목이 1학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졌었다. 그것도 정암께서 친히 전제주의 입장에서 변증학을 가르치셨다. 그만큼 정암은 밴틸의 입장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세월이 지나서 그동안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런데 각 신학교에서 변증학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합신과 고신에서는 변증학이 필수 과목으로는 없고, 선택 과목으로만 가르쳐지고 있다. 총신에서는 오래전에 2학점짜리 한 과목이 있었는데 벌써 오랫동안 1학점짜리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변증학은 상당히 외면받고 있다. 비슷하게 여겨지는 기독교 윤리는 학교에 따라서 고신과 총신처럼 전담 교수가 있는 학교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변증학은 그렇지 않은 형편이다. 앞으로 필수 과목을 더 줄이려는 신학교들의 방향에 비추어 짐작해 보면,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두운 편이다. 물론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 과목으로도 많은 것이 잘 가르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학생들의 관심이 자연히 변증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더구나 밴틸의 전제주의 입장에서 변증학이 활발하게 가르쳐지는

88) Yune Sun Park, "The Korean Church and Westminster Seminary," *The Presbyterian Guardian* (April 1939): 72,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167f.에서 재인용. 장동민 교수님의 번역을 조금 가다듬었음을 밝힌다.

89) 정암은 성경 주석을 개혁파 입장에서 쓰셨음을 곳곳에서 밝히신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주석』 머리말에서 정암은 "해석에는 칼빈주의 원리가 성경적인 줄 알고, 일률적으로 주로 칼빈주의 주석들에게서 인용하였다"고 하신다. 이는 그의 주석 작업 전체에 나타나는 원칙이다.

곳을 거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같이 5학점, 즉 2과목의 변증학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정암이 강조한 전제주의 변증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합신이 시작될 때 정암께서 (이를테면 자신의 분야인 신약학도 아닌) 변증학을 1학년 학생들에게 친히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과연 어느 학년에서 변증학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동안 그랬고 지금도 그런 특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처럼 전제주의 입장이 단순히 변증학에서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신학적 특성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한동안 웨스트민스터는 뱀틸적인 특성이 학교의 특성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든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 특성이었다. 뱀틸이 1972년에 은퇴하여 가르치지 않는 때에도, 그리고 뱀틸 사후 상황에서도 전제주의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단지 변증학 분과나 조직신학 분과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 분과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함의는 뱀틸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변증학 분과에서 시도한 일, 즉 변증도 철저히 개혁파적 특성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는 그 일을 다른 분과에서도 자신들의 분야에 적용한 것이었다. 클라우니(Edmund Clowney, 1917-2005)가 교회론과 목회와 특히 설교에 철저히 개혁파적인 특성이 나타나도록 애쓴 것,⁹⁰⁾ 제이 아담스(Jay Adams, 1929-2020)가 자신의 분야가 된 상담에 개혁파적 특성이 나타나도록 애쓴 것,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철저한 성경적 상담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⁹¹⁾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언급할

90) 이에 대한 논의의 하나로 1984년 그의 총장 은퇴를 기념하는 문집(a Festschrift)인으로 하비 칸이 편집하여 낸 *Practical Theology and the Ministry of the Church, 1952-1984: Essays in Honor of Edmund P. Clowney*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 Co., 1990)에 실린 Jay E. Adams, William Edgar, Roger Nicole, J. I. Packer, Robert G. Rayburn, 그리고 Geoff Thomas 등의 논의를 보라. 또한 이승구,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개혁파적 교회론”, 『전환기의 개혁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8), 개정판 (서울: 말씀과 언약, 2024), 제8장; 그리고 David Prince, “Evaluating Edmund Clowney’s Approach to Christ-Centered Preaching,” available at: <https://www.davidprince.com/2015/01/21/evaluating-edmund-clowneys-approach-christ-centered-preaching/>을 보라.

수 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에게서는 정암이 코넬리우스 밴틸에게서 배워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신 “계시 의존 신학”과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신앙”이 있다. 문제는 이것이 그저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시 의존 신학”은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특별계시의 역사를 중요시하면서 그 역사에 근거해서 신학하자는 밴틸이 평생 존경한 게할더스 보스의 태도와 변증할 때에 신학 전체, 특히 성경이 자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전제하고 해야 한다는 전제주의 입장에 충실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넓게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던적 태도가 성행하고, 좁게 변증에 있어서는 밴틸이 그렇게 변증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소위 “고전적 변증”(classic apologetics)이 주도적인 시대다. 변증에 대한 5가지 방법을 나누어 제시한 책에서⁹²⁾ 전제주의 변증 방법은 프레임이 제시하였지만, 나머지 변증 방법, 즉 고전적 변증(Classical Apologetics)는 윌리엄 레인 크레아(William Lane Craig)가 소위 함증적 변증(Evidential Apologetics)는 게리 하버마스(Gary Habermas)가 그리고 변호사들이 그리하는 것과 같이 증거들을 다 수집하여 제시하는 방법(Cumulative Case Apologetics)은 오랫동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폴 파인버그(Paul D. Feinberg)이 제시하고 있다. 이제 가지는 그 논자들이 인정하듯이 그리 멀리 있지 않고,⁹³⁾ 사실 넓게 보면 r, 것들이 다 고전적 변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일 신학부의 명예교수로 있는 니콜라스 워터스토르프(Nicholas Wolterstorff, 1932)와 칼빈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그의 친구요 동료로 노트트담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있었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는 알빈 플란팅가(Alvin Plantinga, 1932), 윌리엄 알스톤(William Payne Alston, 1921-2009), 케이프 안델(Keith E. Yandell, 1938-2020), 그리고 제임스 켈리 클락(James Kelly Clark) 등이 발전시킨 소위 “개혁파 인식론”(reformed Epistemology)은⁹⁴⁾ 주로 전문적인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어디에

91) 웨스트민스터와 연관하여 있으면서 독립적으로도 활동하는 CCEF: 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al Foundation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를 보라: <https://www.ccef.org/> 가르치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https://www.ccef.org/about/people> 을 보라.

92) Steven B. Cowan, ed., *Five Views on Apologetics* (Grand Rapids: Zondervan, 2010).

93) Cowan, ed., *Five Views on Apologetics*, 16, 56, 92, 122, 132.

94) 어떤 의미에서 개혁파 인식론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많이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큰

놓고 보아야 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논의거리다. 개혁파 인식론은 증거주의(evidentialism)를 의식적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토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근본적 신념”(basic belief)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전제주의와 연관될 수도 있지만, 이 입장의 대변인들은 의식적으로 뱀틸의 입장과는 거리를 드러내고 있고, 그 주장자의 한 분인 윌리엄 크레이그는 자신이 고전적 변증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혁파 인식론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이 흥미로운 논의거리가 될 수 있다.⁹⁵⁾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대는 소위 고전적 변증 방법이 다시 주도적인 세상이 되었다. 코넬리우스 뱀틸의 평생의 작업과 그를 따라서 작업한 정암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다.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전제주의적 변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드물고, 앞의 이야기를 반복하자면 심지어 전제주의적 변증은 가르치지도 않고, 또 가르쳐도 다들 피하여 가려고는 상황이다. 이런 시대에 정암은 정확무오한 성경을 전제하면서 하는 전제주의 변증을 가르치기 원하셨고, 다시 그런 입장이 굳건히 드러나기를 바라실 것이다. 다들 정암으로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상 정암이 가르침과 태도와 입장을⁹⁶⁾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보아온 합신 은퇴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정암이 강조하고 실천하려고 하셨던 전제주의적 변증이 이 땅에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있게 될 전제주의 변증의 르네상스를 꿈꾸면서 이 강연을 마치고자 한다.

자의 합신과 가장 가까운 학파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교수진에 합류한 박바울 교수는 월터스토르프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하였고, 송인규 교수님의 지도교수가 윌리엄 알스톤이었고, 케이프 안델의 『기독교와 철학』(*Christianity and Philosoph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4])과 제임스 켈리 클락의 『이성 예로의 회복』(*Return to Reason* [Grand Rapids: Eerdmans, 1990])을 이승구 교수가 번역했었기 때문이다(각기 1985년에 엠마오와 1998년에 여수론에서 출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합신에서는 이를 전제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박바울 교수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논문을 썼으니 뱀틸의 전제주의적 분석이 어떤 면에는 의도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암묵리에 들어있고, 이승구 교수의 번역도 그 역자 주들에서 잘 나타나듯이 뱀틸과 정암의 빛에서 이 책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95) 지금으로서는 고전적 변증, 전제주의 변증, 개혁파 인식론이 각기 다른 변증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96) 진정한 하나님 중심주의를 잘 드러내면서 하나님 주권을 참으로 강조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바라면서 말과 행동과 결정에서 그런 태도로 일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승구, “정암(正岩) 박윤선의 생애와 신학”, 특히 640-51을 보라.

<제2강좌>

정암 박윤선의 변증: 칼 바르트 비판 중심으로

박바울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조직신학)

서론

“내가 더 멀리 본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¹⁾ 우리가 서 있는 어깨를 경시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높이려는 현대의 경향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간 옛 거인들을 신격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님을 위한 그들의 수고 덕분에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도 실수와 약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거인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옳고 적절한 일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숙해짐을 위해 적절하게 신학(또는 신앙생활)에 대해 정중하게 지적해 줘야 한다.

박윤선 목사(이후 박윤선 박사 또는 정암)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거인 중 한 사람이다. 현재 한국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존경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박윤선 박사는 자신이 신앙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선배 그 이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³⁾ 이러한 본인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 그의 생애 말년에 있었던 일화를 언급한다. 그의 업

1) Robert K. Merton, *On the Shoulders of Giant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9. 아이작 뉴턴이 1676년 로버트 훅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되었다. 이 은유는 좀더 거슬러 올라가 중세 프랑스 철학자 Bernard of Chartres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영어 원문을 보라.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 of giants.”

2) 베드로전서 5:1-11.

3) 박형용, 『정암 박윤선에게서 배우다: 복음에 사로잡혀 산 하나님의 사람』 (국제제자훈련원, 2008), 21

적과 유산을 축하하는 행사의 예배가 끝날 무렵, 박윤선 박사님에게 기념사를 요청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꺼려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결국 기념사 요청을 수락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나는 말할 것 같으면 83년 묵은 죄인이올시다”라는 겸손의 말을 남겼다.⁴⁾ 박윤선 박사의 삶과 신앙, 신학, 및 교회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논문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다.⁵⁾ 그보다는 박윤선 박사의 변증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칼 바르트 사상에 대한 그의 비판의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박윤선 박사의 칼 바르트 신학 비판을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전제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비교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보다 면밀히 분석하면 박윤선 박사의 바르트 신학 비판이 본질적으로 전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명료하면서도 단순한 문체는 그의 변증 방법론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듯하지만, 실제로 박윤선 박사는 개혁주의 전제적 변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바르트의 신론, 기독교론, 성령론, 창조론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바르트의 성경관과 계시관에 대한 박윤선의 비판은 다른 곳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다루지 않고, 바르트에 대한 박윤선의 변증 방법론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볼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박윤선 박사의 변증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섹션은 준부록적인 성격으로 포함되어 있다. 박윤선 박사의 변증적 글들이 일반적으로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은 바르트를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준부록적인 마지막 섹션은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바르트의 오랜 간통죄에 대한 최근의 이해를 살펴보고, 그것이 박윤선 박사의 비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향후 연구를 독려하려 한다.

4) 심의화, “학문보다 더 힘 있는 신앙 인격,” 『그날에 족하니라: 한국교회의 큰스승, 박윤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 유명기 엮음.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84.

5) 박윤선의 삶과 영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김영재, 『박윤선: 경건과 교회 쇄신을 추구한 개혁신학자』 (파주: 살림출판사, 2007), 유명기 엮음, 『그날에 족하니라: 한국교회의 큰스승, 박윤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박형용, 『정암 박윤선에게서 배우다: 복음에 사로잡혀 산 하나님의 사람』 (국제제자훈련원, 2008). Young-Il Seu, *To Teach and To Reform: The life and times of Dr. Yune Sun Park*,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2 [Diss.].

바르트의 신론 비판

바르트의 신론에 대한 정암의 비판에서 비평의 초점은 바르트가 그의 계시에서 하나님을 자유하신 분으로 규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바르트가 말하길,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지만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매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⁶⁾ 박윤선은 이러한 바르트의 신론을 사벨리안주의(일위삼양설一位三樣說)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⁷⁾ 정암은 바르트가 계시자(Revealer), 계시의 사건(Event of Revelation), 인간에 대한 계시의 결과(Result of Revelation)를 하나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능적 삼위일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⁸⁾ 정암은 바르트와 개혁주의 신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의 자유와 활동하시(activistic)는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점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⁹⁾

박윤선 박사는 바르트의 주장이 성경에서 증명된 것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그 오류를 설명한다. 첫째, 정암은 성경이 '활동적'(activistic) 주장보다는 '상태적'(stative) 개념으로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간단히 말한다. 박윤선 박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상태적 지식의 예로서 신의 감각(*sensus divinitatus*)을 언급하면서,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불변하며 유동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¹⁰⁾ 정암은 바르트가 하나님을 사랑의 삼위일체이자 또한 자유로운 분으로 묘사한 것,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entirely) 인간에게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 한다. 정암은 여러 구절(마 11:27, 고전 1:21, 2:13-16, 갈 1:16, 딤후 3:14-17, 히 2:2-4)을 인용하면서 바르트가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는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익이라고 결론하게 된다”는 주장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¹¹⁾

6) CD I/1 296. “God reveals Himself. He reveals Himself through Himself. He reveals Himself. If we really want to understand revelation in terms of its subject, i.e., God, then the first thing we have to realize is that this subject, God, the Revealer, is identical with His act in revelation and also identical with its effect.”

7)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서울: 영음사, 2003), 570.

8) CD I/1 299. “Thus it is God Himself, it is the same God in unimpaired unity, who according to the biblical understanding of revelation is the revealing God, the event of revelation and its effect on man.”

9)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신학정론』 3, no. 1 (1985): 81-99, 82.

10)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82.

정암은 바르트의 공식화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하나님의 다른 네 가지 비공유적 속성을 조명한다. 이 네 가지 속성은 독립성(또는 자존성, aseity),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이다. 정암은 각 속성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를 정통 개혁주의의 관점(orthodox reformed perspective)과 비교한다.¹²⁾ 비교를 통해 박윤선 박사는 바르트가 적어도 신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정통 개혁주의가 아님을 암시한다. 정통 개혁주의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교리 설명과 함께 성경 인용을 사용하는 정암의 변증 방식은 최소한 바르트는 개혁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때때로 정암은 바르트의 입장에 대조하는 개혁주의적 대표자를 설명하기 위해 바빙크의 교리 설명을 사용한다. 정암의 변증 방법론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바르트의 신론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변증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독립성의 속성이 가장 먼저 언급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절대적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실존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은 만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에서도 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용한다.¹³⁾ 이 주장에 반대하여 정암은 하나님은 현세 세계를 초월하는 동시에 현세 세계와의 관계에서 내재하신다고 말한다.¹⁴⁾ 그는 또한 사도행전 17장 27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와 빌립보서 2장 11-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를 인용하여 이러한 내재성 주장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독립성에 대한 바르트의 개념에 대한 정암의 설명이 다소 간결하며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암은, 정통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현세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정암은 하나님은 스스로

11)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82.

12) 김영재, 『박윤선: 경건과 교회 쇄신을 추구한 개혁신학자』, 216. ‘전통적 개혁주의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윤선 박사의 사상이 모든 지점에서 전통적 개혁주의적 관점인지 살펴보기에는 지면과 시간이 부족하다. 정암 스스로의 평가에 따르면 정암은 보수 개혁주의 신학자의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암도 당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주의(spiritualism)와 경건주의(pietism)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CD 2/1, 352.

14)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84.

존재의 원인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고,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계획과 사랑과 능력을 행사하는 데 완전히 독립적이며,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빛과 사랑과 축복의 유일한 궁극적 원천이라는 바빙크의 말을 사용하여 바르트에 대한 그의 비판을 뒷받침한다.¹⁵⁾

'자존성'(ase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정암은 '독립성'(independence)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박윤선 박사가 바르트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바빙크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 것도 이러한 용어 선택을 설명하는 듯하다. 바빙크 자신도 '자존성'이라는 용어보다 '독립성'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성이 더 강조되었고, "자존성"이라는 단어는 곧 "독립성"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자존성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을 표현하는 반면, 독립성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은 존재, 완전, 작정, 행위 등 모든 면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¹⁶⁾

어떤 사람들은 독립성보다 자존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는 창조에 대한 고려 없이 하나님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독립성은 창조를 전제로 하며 하나님을 그의 창조 사역과 관련하여 인식한다. 박윤선 박사는 이 속성을 적절하게 출애굽기 3장의 테트라그마톤(신명사문자, tetragrammaton)과 관련하여 언급한다.¹⁷⁾ 정암이 바르트를 비판하면서 정통 신론이 "하나님의 독립성은 초월적이지 않다"는 문구를 긍정한다고 설명할 때, 그가 자존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했다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God's time for us")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고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바르트의 변증법적 개념과 더 잘 대조되었을 것이다. 바르트는 자존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언어의 유용성을 부정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로'(in Himself) 존재하면서도 피조물 자신이 되지 않고도

15)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83.

16)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God and Creation, vol. 2,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4), 144-145.

17)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83.

피조물에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더 명확한 대조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¹⁸⁾

박윤선 박사는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편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더 열거하고 설명한다. 바르트가 구체화하는 불변성과 영원성의 두 속성에 대해 정암은 성경을 근거로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비교하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비판한다. 바르트가 편재성의 속성을 구체화한 것에 대한 비판은 전제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피조물 영역에 들어와서 다른 존재 양식(mode of existence)을 갖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윤선 박사는 "'공간성'은 존재의 유일한 형태인가?"라는 전제적 질문으로 간결하게 비판한다.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전재성(어디든지 계심)은 왜 그의 '공간성'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는가?"라는 전제적 질문으로 비판한다.¹⁹⁾

하나님의 편재에 대한 바르트의 개념에 대한 위의 비판은 단순하지만 전제적이고 지각적인 비판이다. 바르트가 현실을 변증법적으로 *Geschichte*와 *Historie*로 나눈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 수 없고 초월적인 존재로 유지하려는 그의 해석과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⁰⁾ 흥미롭게도 바르트는 두 역사의 영역을 공간과 시간을 지니고 있는 영역으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인류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박윤선 박사는 바르트의 편재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모순을 조명하고 있다. 그리스도 사건(Christ-event)이 두 영역 사이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사건이라면, 왜 두 영역이 공간적 또는 시간적이어야만 하는가? 왜 이것이 *Geschichte*의 필수 조건이어야 하는가? 정암은 바르트 신론의 이러한 측면을 비판할 때 간결한 방식으로 전제적 방법을 사용한다.

바르트의 기독론의 비판

바르트의 기독론에 대한 비판에서 박윤선 박사는 바르트의 기독론이 여러 점에서 정통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어도 세 가지

18) CD 2/1, 527. 바르트는 하나님의 지역성(locality)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무한성(infinity)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19)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88.

20) Karl Barth,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 Edwyn C. Hoskyns (London: Oxford, 1972), 36.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무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하여 정암은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과 교회 교의학 사이에 내적 모순(internal inconsistency)을 드러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정암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바르트의 한 곳에서의 묘사가 정통적 관점과 일치한다고 단언한다. 그는 바르트의 다음 발언을 긍정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의 낮아지심에서도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감해지지도 아니하시며,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도 아니하시며, 다른 것과 섞이지도 아니하시며, 멈추어지지도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변치 않으시고 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다. 그의 신성이 약해졌다고 가정된다면, 그에게서 성취된 속죄가 의심스러워진다. 그가 겸허해지셨으나 그 겸허가 그의 자격 정지(신성의 자격 정지)로 된 것이 아니다. 그가 먼 나라에 갔으나 거기서 특별히 그가 그 자신에게는 외국인 아니었다.²¹⁾

정암은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에서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언급한다.²²⁾ 그는 그러한 구분이 가능하다면 역사 속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변증법을 통해 바르트는 이러한 상충되는 주장을 긍정할 수 있지만 박윤선 박사에 따르면 정통적이거나 개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정암은 바르트의 그리스도의 무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비판할 때, 각각 바빙크의 진술과 성경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정암은 로마서 주석과 교회 교의학에서 모두 바르트가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분석한다.²³⁾ 정암은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이 그에게 본질적이지 않다는 바르트의 주장은 개혁주의 기독교론 개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바르트의 견해와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

21) CD 4/1 196.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89, 에서 인용.)

22)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89.

23)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90.

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죄나 부패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빙크의 진술을 대조 한다.²⁴⁾ 이 비평에서 박윤선 박사는 단순한 대조에서 더 나아간다. 그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바르트의 이해는 그것이 그의 존재 상태(existence)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⁵⁾ 이 비판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즉 그가 취하는 본성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다. 박윤선 박사의 바르트의 묘사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본성과 인격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필연 요소들을 고려하면 바르트의 결론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윤선 박사는 그리스도와 죄에 관한 바르트의 사상의 일부 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바르트는 그의 표준 변증법적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했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말씀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취하고 육신을 취하신다는 것, 즉 죄 많은 인간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상태와 위치에서 그분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 창조주로부터 피조물만이 아니라 거룩한 창조주로부터 죄 많은 피조물의 모든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의 행동은 계시적이고 화해적인 행동이 아닐 것이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이질적인 말씀이 되셨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찾거나 만지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먼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서 그분은 그 상태와 조건의 근간이 되거나 그 상태와 조건에 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취하고 채택된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인간 존재는 거룩하고 따라서 죄가 없는 인간 존재이다.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인간 존재에서 영원한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 우리에게 지극히 그리고 도움이 되게 가까이 다가온다.²⁶⁾

따라서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사람(God-man)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존재와 경험을 그리

24)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Salvation, vol. 3,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317.

25)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91.

26) CD 1/2, 155-156. 필자의 번역.

스도의 인성에 전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에 관한 전제의 차이이다. 또 하나의 구체적인 전제 차이는 바르트에 따르면 정통 개혁주의 견해와 달리 죄는 오직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만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바르트의 활동적인(activistic)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유 개념은 여기에도 적용되며 상태적(static)인 본질의 범주는 고려되지 않는다. 정암은 비교 전제주의(comparative presuppositionalism)의 적용에 있어 더 깊은 비판의 문을 열어 놓았지만, 더 깊은 발전은 다른 이들에게 맡긴다.

박윤선 박사가 제시하는 기독교적 비판 중 하나는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에 대한 비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흔히 바르트의 그리스도 일원론²⁸⁾이라고 불리는 데 바르트는 2천 년 전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시성(contemporaneity)이라는 개념으로 답한다.²⁹⁾ 이 동시성 개념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고 영원의 영역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관계하는 것은 바로 이 '언제나 지금'(eternal now)의 영역에서이다. 이러한 바르트의 공식에 대한 박윤선의 비판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육신은 영원한 예수와의 구별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역사적 인격이라는 개념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³⁰⁾ 정암은 그리스도 사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7) CD 4/1 p144. "The reality of sin cannot be known or described except in relation to the One who has vanquished it." 이 공식의 함의는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 바르트가 강조하는 질서의 초점 중 하나는 죄는 그리스도 이후에만 인식되야 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함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없이 죄의 죄책감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용 관점에서 죄와 복음에 대한 정통 개혁주의적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리지만, 이 관계에 대한 유티키안(Eutychian)적 추구를 인식해야 한다. 바르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유티키안주의와 비슷하다. 우리의 죄책감을 삼켜버릴 정도로 지배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배제하고 죄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제안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 신학적 묘사가 바르트의 오랜 간통과 연관 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이 시점에서 추측으로 인정하지만, 바르트의 신학 구체화는 그리스도인의 역사적 삶에서 죄를 죄로 확신하는 데 적합하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을 즉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거 해 버린다.

28) 비평가들이 바르트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바르트는 이 용어를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9) 박윤선, 『로마서 강의』 (수원: 도서출판 영음사, 2013), 163.

성육신하신 예수의 이러한 역사적 측면을 제거하는 대신, 바르트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적용을 설명 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정암은 성경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적용으로 성령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현세적 본성을 모두 긍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³²⁾ 정암은 바르트의 영원하신 그리스도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비교 전제적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좁은 전제를 발견할 수 있다.³³⁾

정암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르트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는 바르트가 한 시점에서 부활의 몸과 그 몸이 참된 몸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긍정하면서도 변증법적으로 부활이 역사적 실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다.³⁴⁾ 이를 위해 정암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질 수 있도록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누가복음 24장 41-43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한 마리를 먹으셨으며,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제공하신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부활 이야기가 인간의 시간 영역에서 형성된 *Geschichte* 사건이라는 바르트의 주장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논거는 두 가지로 오류를 드러낸다. 첫째, 정암은 바르트처럼 부활에 대한 증거의 확실성을 그리스도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두지 않고 성경에 두고 있다. 바르트는 다음 인용문에서 이를 잘 설명한다,

30) 박윤선, 『로마서 강의』, 164.

31) 박윤선, 『로마서 강의』, 164.

32) 박윤선, 『로마서 강의』, 165.

33) 정승원, 『계시와 변증』 (서울: 세계밀알, 2009), 206. 이 시점에서 박윤선 박사의 계시 개념이 계시에 대한 개혁주의의 관점과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개혁주의의 다수 입장이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모두 긍정하는 반면, 박윤선 박사는 계시를 성경 또는 특별계시의 관점에서 좁게 이해하고 있다. 정암이 일반 계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묘사는 일반 계시의 기능과 범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변증학적 관점에서의 함의들이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의 감각(*sensus divinitatus*)은 전제적 변증의 중요한 토대이다. 박윤선 박사의 로마서 주석에서 '진리의 억압'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그런 지식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정암은 이 구절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 주석에서, 죄인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박윤선, 『성경주석 로마서』 (서울: 영음사, 1969), 36.

34)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92. 부활에 관한 바르트의 변증법적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CD 3/2, 541-542를 인용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부활 이야기는 모순적이다. 이로부터 일관된 역사는 발전될 수 없다. 복음서와 바울이 전하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조화될 수 없다. 그것은 혼돈이다. 19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예를 들어 제 아버지를 비롯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려 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들의 의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 교회조차도 부활 이야기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다. 이 독특한 사건에 대해 참석자 모두에게 지진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지나간 사건에 대해 각자 조금씩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스크랩만으로도 사건의 규모와 역사성을 증언하기에 충분하다. 모든 증인들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그 역사의 주체이시기에 그 역사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일에 필요한 믿음을 보내주셨다.³⁵⁾

정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뢰할 만한 자료로서 성경에 관한 첫 번째 답변을 간결하게 제시한다.³⁶⁾ 바르트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참여하신 역사적, 일상적 활동을 설명하는 구절들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통 개혁주의의 입장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바르트의 성령론의 비판

박윤선 박사는 성령 교리라는 주제에 있어서 바르트가 정통 신학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모호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바르트의 성령 교리에 대한 정암의 비판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구속사에서의 성령에 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암의 변증 방법론을 재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35) Karl Barth, *The Faith of the Church: A Commentary on the Apostle's Creed According to Calvin's Catechism*, ed. Jean-Louis Leuba and trans. Gabriel Vahanian (New York: Meridian, 1963), 108.

36)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92.

박윤선 박사가 그의 비판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성령님의 중생 사역, 성령님의 믿음 사역, 성령님의 성화 사역. 바르트의 성령과 중생에 대한 공식화와 관련하여 정암은 바르트가 중생한 신자는 비존재(non-existence) 밖에서는 존재(existence)를 획득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과 신자 역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을 모두 변증법적으로 긍정한다고 주장한다.³⁷⁾ 정암이 바르트를 비판하는 이 부분은 전제적 방법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는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과 교회 교의학에서 전자는 중생한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후자는 중생한 사람이 분명히 현실적인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³⁸⁾ 바르트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때'('God's time for us')와 '우리의 때'('our time')라는 변증법적 전제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생인의 이러한 모순을 화해시키기란 쉽지 않다. 구원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는 바르트의 주장에 동의하더라도, 그렇다면 중생한 한 사람의 두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변증법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다.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바르트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암은 다소 약한 비판을 제시한다. 다시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과 교회 교의학의 모순된 진술들을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 바르트는 '믿음'에 인간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신다고 말하는 것 같다. 정암은 후자에서 바르트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 인간의 주체성을 주장함으로써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³⁹⁾ 이는 명백한 모순이지만, 정암의 비판의 약점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하나는 바르트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로서의 믿음의 동시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들(Son)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을 자유롭게 믿게 한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은 아들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유의 행위이다. 아들이 그를 자유롭게 하지

37)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95.

38) Barth, *Romans*, 140, 및 CD 4/4, 37-38.

39)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96.

않으면 사람은 이 자유를 갖지 못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 선택과 믿음에 대해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힘이다... 믿음은 동시에 가장 경이롭고 가장 단순한 것이다. 그 안에서 사람은 눈을 뜨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 신앙은 아버지의 집과 어머니의 무릎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아이의 단순한 발견이다.⁴⁰⁾

바르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이 두 가지를 모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믿음에 관한 개혁파의 두 번째 입장은 신자들이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도구(instrument)라는 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칭의에 관한 장에서 "...이것은 이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이들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 순종을 이들의 의로 이들에게 전가하심으로 써가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satisfaction)을 이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한다.⁴¹⁾ 바르트도 동의하듯이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며, 믿음은 믿는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전가적 측면에 대해서는 바르트가 동의하지 않겠지만, 신앙이 신적으로 부여되는 측면과 인간이 사용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르트가 동의할 수 있다. 정암은 성경은 참된 믿음은 도박이 아니라 순수하고 의심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며 이 비평을 마무리한다.⁴²⁾

40) CD 4/1, 748.

41) WCF 11.1.

42)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97. 여기서 박윤선 박사가 말한 의심 없는 것(without doubt)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확신'(assurance)에서는 "무오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윤선 박사가 주관적 확실성을 의미했다면, 정암의 믿음 개념은 믿음과 확신 사이의 관계를 개혁주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바르트의 창조론의 비판

흥미롭게도 박윤선 박사는 그의 저서 『성경신학』에서 바르트의 창조 교리에 대한 간략한 비판을 제시한다.⁴³⁾ 전제 변증법의 관점에서 볼 때, 창조 교리는 하나님 교리와 함께 상호 연관적으로 중요하다. 자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할 때, 전제적 변증학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본질적인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를 흔히 창조주-피조물 구별(Creator-creature distinction)이라고 부른다. 정암은 바르트가 세계가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긍정하지만,⁴⁴⁾ 바르트가 창조 이야기를 사가(*Saga*자계)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⁴⁵⁾

바르트의 창조 교리에 대한 정암의 비판은 하나님의 창조 기록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창조가 어떤 의미에서도 계시로 전제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바르트의 오류를 지적한다.⁴⁶⁾ 정암은 바빙크를 통해 자신의 비교 전제주의를 사용한다.⁴⁷⁾ 인용문에서 바빙크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명하고 계시적인 것으로 긍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억압되어 있어도 알 수 있다고 한다.⁴⁸⁾ 비판 자체는 짧지만 성경적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다.

43)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2001), 65.

44) CD 3/1, 5.

45) 박윤선, 『성경신학』, 65. 참고 문헌에서 저자는 “자계”라는 단어를 “sage”로 번역했다. 이것은 오타 또는 오역으로 보이며 그가 “사가”를 의미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CD 3/1, 81. “I am using saga in the sense of an intuitive and poetic picture of a pre-historical reality of history which is enacted once and for all within the confines of time and space. Legend and anecdote are to be regarded as a degenerate form of saga: legend as the depiction in saga form of a concrete individual personality; and anecdote as the sudden illumination in saga form either of a personality of this kind or of a concretely historical situation. If the concept of myth proves inadequate—as is still to be shown—it is obvious that the only concept to describe the biblical history of creation is that of saga.” 바르트에게 있어 이 “사가”는 신화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것도 아니며, 오히려 “역사 이전의 역사적 실재”이다.

46) 박윤선, 『성경신학』, 65

47) 박윤선, 『성경신학』, 65

48) Bavinck, RD2, 55.

이후, 정암은 “창조 신앙과 신앙생활과의 관계”이라는 제목 아래 바르트의 창조관과 바르트의 신학 구조 전체에 대해 강력한 전제 변증을 하는 짧은 글을 남긴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⁴⁹⁾ 이 진술은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 변증적 의미를 담고 있다. 바르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 수 없으면서도 신-인간(God-man)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체계 안에서 자신의 신학을 구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 역사의 세계, 즉 *Historie*에 또는 “우리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영역, 즉 *Geschichte* 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는 본질적인 연결이 없다. 짧은 글에서 정암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무의식적으로 암시하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교적 예배의 의미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형이상학적 범주에 대한 혐오와 거부로 인해 바르트는 자신이 긍정하는 이 의존의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포함시켜야 했다.⁵⁰⁾

49) 박윤선, 『성경신학』, 67. 이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공식화하는 데 중요한 구절이다. 특히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이 구절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면에서 창조주에게 의존한다. 구별이 있지만 일방적인(unilateral) 의존도 있다.

50) CD 3/1, 93-94. “The creature is not self-existent. It has not assumed its nature and existence of itself or given it to itself. It did not come into being by itself. It does not consist by itself. It cannot sustain itself. It has to thank its creation and therefore its Creator for the fact that it came into being and is and will be. Nor does the creature exist for itself. It is not the creature itself but its Creator who exists and thinks and speaks and cares for the creature. The creature is no more its own goal and purpose that it is its own ground and beginning. There is no inherent reason for the creature’s existence and nature, no independent teleology of the creature introduced with its creation and made its own. Its destiny lies entirely in the purpose of its Creator as the One Who speaks and cares for it. The creature’s right and meaning and goal and purpose and dignity lie—only—in the fact that God as the Creator has turned toward it with His purpose. Any other attitude than that of God’s free acceptance of this turning towards it and therefore of this advocacy and care; any claim to a right inherent in its being and nature, to a meaning which has not first been received, to a goal which it has fixed for itself, to a purpose which it has in and for itself, to a dignity independent of the free will of its Creator—all this is just as meaningless as the illusion that it came into being of itself, that it consists in itself

결국 박윤선 박사는 의도치 않게 바르트의 창조 교리에 대한 위대한 전제적 변증문을 제시하고 있다.⁵¹⁾

박윤선 박사의 변증 방법론의 재구성

박윤선 박사의 바르트 비판에는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박윤선의 변증 방법론을 재구성해 보려고 한다. 두 가지 서론적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정암이 방법론의 단순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판하는 평가가 아니라 칭찬의 의미이다. 박윤선은 말을 낭비하지 않았다. 간결한 문체로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미니멀한 스타일이지만 내용의 깊이는 독자에게 페이지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두 번째는 정암의 변증 방법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바르트의 변증법적론과 달리 정암의 변증 방법과 내용의 일관성은 기독교 신학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and that it can sustain itself. By its very creation, and therefore its being as a creature, all such views are shown, like illusion, to be basically impossible, and thus disclosed as falsehoods.”

51) CD 3/2, 129-132. 바르트는 다음 인용문에서 흥미로운 연구 지점을 제시한다. 하나님 안에 다른 피조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바르트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과 그 함의를 성경처럼 긍정한다면 쉽게 풀릴 수수께끼 같은 문구이다. *“What constitutes the hidden being of all creatures is revealed as human being because Jesus is human. And it is the fact that human being is revealed as being with God which constitutes its particularity. If we affirm and stress this fact, it is not in arrogance toward other creatures, but as an act of humility in face of the secret of God in other spheres and its revelation in our human spher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in this way the particularity of other creatures is also emphasized. The glory of other creatures lies in the concealment of their being with God, no less than ours in its disclosure. For all we know, their glory may well be the greater. We do not really know that the outer circle of all other creatures exists for the sake of the inner circle of humanity. The very opposite may well be the case. Or perhaps both circles, the outer and the inner, have their own autonomy and dignity, their distinctive form of being with God. What does this difference amount to as against the fact that the human being Jesus as a creaturely being is the focal point of both circles?”* (바르트의 강조)

이 연구를 통해 박윤선 박사의 변증 방법론에 대해 필자가 사용한 표현은 '비교 전제주의'(comparative presuppositionalism)이다.⁵²⁾ 정암의 변증 방법론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방법론 자체를 언급하기에 앞서 그의 방법론의 바탕이 되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 지식의 깊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의 주석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분명해지며 사후에 출판된 『개혁주의 교리학』을 읽음으로써도 알 수 있다. 그의 방법론의 비교적 측면은 다른 비판의 대상을 정통 개혁주의 이해와 비교하고 대조한다. 정암의 변증 방법론의 전제적 측면은 관찰하기 어렵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의 근원이라는 그의 강한 확신에서 비롯된다.⁵³⁾ 그의 성경 이해는 단순한 문체 때문에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성경주의가 아니라 점진적 계시라는 보쉬안(Vosian) 패러다임에 깊이 관련한다. 정암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⁵⁴⁾ 박윤선 박사가 바르트를 비판하는 방식에서 성경(그리고 때로는 바빙크를 성경의 정확한 해석자로 간주하는)이 자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참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바르트는 이런 전제를 인정 할 수 없었다.

박윤선 박사의 비교 방법은 상당 부분 내재적(inherent)이라고 할 수 있다. '내재적'이라는 말은 정암이 전제적 방법의 모든 단계를 다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뜻이다. 바르트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그가 내재적 모순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내재적 전제주의의 표면화이다. 윌리엄 에드거는 전제적 변증법의 단계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의 내적 역학(inner dynamics)을 발견하기 위해 그 사람의 세계관(ground)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그 입장이 어떻게 인간의 곤경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 없는지 그 사람을 돕는 것이다.⁵⁵⁾

52) 박윤선 박사의 일관된 변증 방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필자가 구성한 문구이다.

53) 김재성, “박윤선 박사의 행동하는 믿음과 학문,” 『그날에 족하리라: 한국교회의 큰 스승, 박윤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 유영기 엮음,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89.

54) 김재성, “박윤선 박사의 행동하는 믿음과 학문,” 89.

55) William Edgar, *Reasons of the Heart: Recovering Christian Persuasion*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 2003), 55.

본질적으로 이 단계는 상대방의 신념 체계의 내적 모순을 밝혀내는 것이다. 물론 바르트는 불신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그의 체계에는 비성경적인 구조와 교리가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적에 배치할 수 있다. 정암은 바르트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에서 완전한 전제적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그 방법론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완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남겨 둔다.

이 시점에서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 교의학』에서 발견되는 바르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 비판 요점을 제시한다. 첫째, 바르트주의(또는 신정통주의)는 성경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을 통해 성경을 보는 데서 출발한다. 둘째, 실존주의 철학은 그 인식론에서 성경적이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존재하지만 인류와 인류 역사를 향해 내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론과 그의 다른 비판의 요점을 통해 우리는 박윤선 박사의 전제가 성경과 그 내용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오하고, 하나님으로 영감되고, 계시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⁵⁶⁾

박윤선 박사의 바르트에 대한 비판과 필자가 '비교 변증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그의 변증 방법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조사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내용과 방법 모두에서 박윤선 박사의 바르트 비판은 칭찬할 만하다. 모든 지점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 방법은 일관적이면서도 단순하다. 박윤선이 시작한 변증 작업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56) 박윤선 박사의 전제와 코넬리우스 반 틸의 전제 사이에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다 본질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초점의 측면에서 정암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전제하는 반면, 반 틸은 성경의 자기 자존적, 즉 존재론적 하나님을 전제한다. 강조점을 밝히는 순서의 차이에 주목하면 된다. 이 강조점의 차이는 아마도 정승원 박사가 조명하는 계시와 성경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견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Cornelius Van Til,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 2007), 22-23 "If we are to have coherence in our experience, there must be a correspondence of our experience to the eternally coherent experience of God. Human knowledge ultimately rests upon the internal coherence within the Godhead; our knowledge rests upon the ontological Trinity as its presupposition."

두 인물의 유산: 박윤선(1905-1988)과 칼 바르트(1886-1968)

이 마지막 부분은 부록이 아니지만 부록처럼 읽어도 좋겠다. 박윤선 박사와 칼 바르트라는 두 신학자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한 흥미로운 질문을 조명하는 결론이다. 두 사람 모두 신학자로서 각자의 맥락에서 거인이었지만, 특히 최근 바르트가 조교 샬롯 폰 키르쉬바움(Charlotte von Kirschbaum)과 40년 가까이 간통했다는 폭로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⁵⁷⁾ *Ad hominem*(인신공격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지만, 박윤선 박사에게 바르트의 삶에 대한 이 최근의 정보가 있었다면 바르트에 대한 비판이 어떤 식으로든 달라졌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⁵⁸⁾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삶의 맥락이 그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는지 추측을 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바르트의 신학에 결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삶의 실수와 죄를 근거로 자신이나 어떤 신학자의 신학적 정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바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두 여성과 함께 살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바르트는 샬롯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것은 단지 악마의 작품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와 살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이 일을 멈출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⁵⁹⁾ 이러한 분열된 마음의 죄책감이 그의 신학적 공식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아마도 속죄를 찾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확한 결론이 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연구 질문이 될 것 같다.

57) Christiane Tietz, *Karl Barth: A Life in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58) 유영기, "정암 박윤선의 신학," 『죽산 박형룡과 정암 박윤선』, 오덕교 역음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329. 박윤선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겸손과 경건의 삶을 언급하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 질문이다. 유영기 박사는 박윤선 박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칙(*Coram Deo*)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한다.

59) Mark Galli, "What to Make of Karl Barth's Steadfast Adultery," *Christianity Today* (Oct 20, 2017), <https://www.christianitytoday.com/2017/10/what-to-make-of-karl-barths-steadfast-adultery>에서 인용.

결론

이 연구에서는 두 명의 신학적 거장을 관찰했으며, 한 사람의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윤선 박사는 평생에 걸쳐 바르트의 신학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많은 저술로 남겼다. 바르트와의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박윤선 박사가 제공하는 내용은 절대 적지 않다. 특히 정암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그의 신학적 쟁점과 함의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르트의 신론, 기독론, 기독론, 창조론에 대한 박윤선 박사의 비판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정암의 비판에 일관되고 단순하게 나타나는 대략적인 방법론을 정립했다. 이를 “비교 전제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바르트를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 훌륭한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도, 동시에 박윤선 목사의 최대 전제였던 성경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박윤선 목사의 전형적인 방식일 것 같다. 그리고 정암이 바랐던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의 현 세대는 그의 어깨를 디딤돌로 이어받아 바르트의 신학적 오류이든 다른 신학적 오류이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Barth, Karl. *Church Dogmatics: The Doctrine of Creation*, Volume III, Part 2.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Edinburgh: T&T Clark, 1960.
- .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lated by Edwyn C. Hoskyns. London: Oxford, 1972.
- Karl Barth, Karl. *The Faith of the Church: A Commentary on the Apostle's Creed According to Calvin's Catechism*. Edited by Jean-Louis Leuba. Translated by Gabriel Vahanian. New York: Meridian, 1963.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 2, *God and Creation*.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4.
- . *Reformed Dogmatics: Salvation*. Vol. 3.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 Edgar, William. *Reasons of the Heart: Recovering Christian Persuasion*.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 2003.
- Galli, Mark. "What to Make of Karl Barth's Steadfast Adultery." *Christianity Today*, Oct 20, 2017. <https://www.christianitytoday.com/2017/10/what-to-make-of-karl-barths-steadfast-adultery>.
- 정승원. 『계시와 변증』. 서울, 세계밀알, 2009.
- 김재성. "박윤선 박사의 행동하는 믿음과 학문." 『그날에 족하나라: 한국교회의 큰스승, 박윤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 유명기 엮음, 86-92.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 Kim, Young-Jae(김영재). 『박윤선: 경건과 교회 쇄신을 추구한 개혁신학자』. 살림출판사, 2007
- Merton, Robert K. *On the Shoulders of Gian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박형용. 『정암 박윤선에게서 배우다: 복음에 사로잡혀 산 하나님의 사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박윤선. "칼 바르트의 교의학에 나타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신학정론』 3/1 (1985): 81-99.
- _____. 『로마서 강의』. 서울: 도서출판 영음사, 2013.
- _____. 『성경주석 로마서』. 서울, 영음사, 1969.
- _____.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2001.
- _____.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 Seu, Young-Il. *To Teach and To Reform: The life and times of Dr. Yune Sun Park*. Ph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2.
- 심의화. "학문보다 더 힘 있는 신앙 인격." 『그날에 족하나라: 한국교회의 큰 스승, 박윤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 유영기 엮음.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 Tietz, Christiane. *Karl Barth: A Life in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Van Til, Cornelius.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 2007.
-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Glasgow: Free Presbyterian Publications, 2003.
- 유영기. "정암 박윤선의 신학." 『죽산 박형룡과 정암 박윤선』. 오덕교 엮음, 245-353.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2005.

<제3강좌>

어록으로 본 정암 박윤선의 기도론과 실천

정창균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前 총장, 설교학)

목차

들어가는 말

1. 합신과 정암 박윤선
2. 정암 박윤선과 기도
3. 정암 박윤선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 1) 항상 기도하라
 - 2) 참된 기도를 하라
 - 3)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 4) 설교와 기도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곁에 손잡고 함께 있지 않아도, 눈앞에 얼굴 마주 보고 있지 않아도, 그 어른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르침이 되는 선생님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다. 그 선생님 생각이 나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성찰이 되고, 그 선생님을 떠올리면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격려가 되는 어른을 사는 동안 다만 한두 분이라도 마음에 품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나에게 정암 박윤선은 그런 어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박윤선 선생님에게 평생 빛을 지고 살고 있다. 사실 나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직간접으로 그는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의 선생님이다. 특별히 그가 말년의 7-8년 동안 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교단의 사람들에게는 정암 박윤선 목사님이야말로 그러한 스승이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와 그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재확인하며 지내 온 것이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벌써 서른여섯 번째가 되었다.

이렇게 정암을 존경하고 기리며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우리를 향하여 그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비롯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박윤선을 무조건 떠받들고 정당화 하고 심지어 우상화 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암이 보여준 가정생활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약점 등을 지적하며 정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 박윤선은 유교문화의 풍토에서 자랐고, 일제 강점기를 살아야 했으며, 전처를 잃고 재혼한 가정으로서 가정을 이끌며 살아야 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와 신학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나아가기 위한 사명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다. 그는 그 시대, 그 상황의 아들이었으며, 그 시대를 넘어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 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야 했다. 그는 주석 집필에 전념하느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그 와중에 여러 인간적 도리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본인도 말년에 이르러 많이 아쉬워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박윤선이 시대 상황 때문이든지, 개인적인 성품 때문이든지 이런저런 인간적 약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이루어낸 한국교회사적 가치는 여전히 독보적이고 귀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를 이끌어낸 선구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결론은 분명하다. 그의 훌륭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억지를 부릴 필요도 없고,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기 위하여 염치없는 무리수를 두어서도 안된다. 동시에 그를 높이 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가치를 훼손하거나 덮어버려서도 안된다. 그의 개인적, 시대적 한계는 한계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교회사적 가치를 드러내고 전수하는 일은 힘을 써서 한 시대의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공평하고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의 구성과 진행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강의의 주제는 정암 박윤선의 기도이다. 본 강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축으로 하여 진행된다. 우선은 서론적으로 정암 박윤선과 합신의 관계를 서론적으로 개괄하고 이어서 정암 박윤선의 기도와 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나는 이미 정암 박윤선을 주제로 한 몇 차례의 강의 및 논문 발표와 두 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특별히 그의 기도에 대하여는 수년 전에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는 제목으로 소책자를 출간한 바 있다. 오늘 강의는 주로 합신개교 30주년을 맞으며 출간했던 “위기의 한국교회, 목회자에 달렸다”와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는 기존의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다. 특히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오늘 강의에 제시된 자료들은 절대적으로 정암의 육성 어록에 근거하여 나의 논지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강의의 제목도 “어록으로 본 정암 박윤선의 기도론과 실천”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는 정암 박윤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논자**가 아니라, 나의 해설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가 남긴 말들을 직접 요약 인용하고 전달하는 **소개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그 중에 어떤 인용문은 짧게나마 정암 자신의 육성을 수십 년 전 그의 음성을 생생히 다시 들어보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어록

이 강의에서 “어록”이라고 구분한 것은 대략 세 가지 종류의 정암이 남긴 말씀을 지칭한다.

1) 기억하는 어록: 내가 정암의 생전에 직접 들었고 여전히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정암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들은 수십 년을 지나면서도 문득문득 귀에 쟁쟁하게 다시 떠오르곤 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에 예로 든 몇 말씀들이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은 나의 신앙 형성에, 어떤 말씀은 설교학자로서 나의 설교학 이론을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 “망하게 되면 망해야지요. 그러나 역사상 바르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까?”**

개교 초창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신의 장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입장을 피력할 때 그는 채플에서 힘있게 말하곤 했다. 나의 신앙생활과 사역자의 길에 담대함을 갖게 하였다.

*** “나는 믿지 않아도 나는 믿겠다.”**

성경은 얹어 놓고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전제주의, 계시의존사색이라는 등의 신학적 용어로 요약된 그의 개념은 그 뿌리를 이러한 성경관에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어떤 신학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나의 설교학 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 “합동신학교 하는 일에 되는 일도 없고, 합동신학교 하는 일에 안되는 일도 없습니다.”**

학교 인가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던 초창기 불안한 시절, 채플 광고 시간에 학교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했고, 이 말은 당시 학교 밖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되는 일이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것을 안되는 일도 없다는 상황으로 뒤바꾸는 힘은 우리의 기도라고 그는 믿었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채플 때마다 전교생이 기도회 힘을 쏟았다.

*** “파고 파고 또 파서 말씀 한 마디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한 필사적인 성경연구를 강조하면서 그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였다.

*** “나도 사람을 가르쳤다면 제법 가르쳤습니다. 졸업하고 나가면 너도 목사 나도 목사하고 나오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을 때 우리(교수들)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사람 하나로 보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 하나로 보고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평생 나의 철학과 지론이 되었고, 내가 25년째 이어오는 설교자하우스의 목회자들에 대한 기본 태도가 되었다. 나의 주치의의사는 나에게 이 말을 들은 뒤, 자신도 선교사와 목회자를 치료할 때는 이 마음으로 치료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2) 전해들은 어록 -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정암과 지근거리에서 지냈거나 강의 혹은 설교를 들었던 분들에게 전해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 정암의 기도를 주제로 출간한 나의 책의 제목,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는 총신 사태당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서서 동분서주 하던 신학생 양영학 전도사를 연구실로 불러서 정암이 하신 말씀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세요!”를 전해듣고 정한 제목이었다.

3) **육성어록** - 남아있는 그의 설교나 강의 혹은 책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어록들이다. 이 강의에 인용된 절대다수의 어록들은 시리즈 설교집 카세트로 발간되었거나 발간이 지연되어 결국 미발간으로 끝나버린 육성 설교들에서 인용한 어록들이다. 이 설교들은 1980년 합신 개교 이후에 그가 행한 설교들이다. 이 강의에서는 기도를 언급한 그의 육성을 근거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본인 나름대로 분석 혹은 요약하며 제시하려고 한다.

1. 합신과 정암 박윤선

정암의 삶은 신학자요, 주석가요, 설교자라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신학교 강의와 주석 저술, 그리고 강단의 설교는 정암이 평생토록 자신의 신학과 말씀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결정적인 방편이었다. 이 세 가지 일은 정암이 자신의 “삶을 바친 세 가지 일”이었다. 그는 이 세 가지 일을 놓고 **“뼈에 사무치는 열정을 가지고 일생 동안 수행한 일”**이었다고 회고한다.¹⁾ 그 중에서도 설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였다. 정암 자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무엇보다도 설교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가 소천하기 얼마 전에 병상에서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말이 있다. “모든 친구들이 다 갔으니 나도 가야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설교를 못하는 것이다.”²⁾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설교하기를 사모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복윤 교수는 “그는 기도 없이 못 산 것처럼, 설교 없는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정암에 대하여 증언한다.³⁾

그는 결국 설교자였고 설교자로 살고 싶은 것이 그의 마지막까지의 일관된 소원이었다. 따라서 그가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주어 치열하게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도 다름 아닌 설교였다. 그의 설교 강조는 어느 때는 거의 절규처럼 들릴 정도였다. 1984년 개교 4주년 기념 예배 설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당시 그의 나이는 79세였다.

1) 박윤선, 신학연구, 주석, 설교에 바친 생애, 신앙계, 1983년 1월호, 39.

2)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49;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박윤선 목사의 생애와 사상,” 『신학정론』 7/2(1989): 351

3) 신복윤, “성경의 사람, 한국의 나다나엘,” 351-52.

이 세상 학문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몸을 내놓고 지금 생명을 바쳐 일하려고 하는 이 귀한 일에 있어서 어찌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데 노력을 아끼겠습니까? 설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그야말로 쓰러질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는 말씀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귀한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릴 만치 노력하는 것이 그 아까운 것입니까? 새벽에도 연구하고 밤에도 연구하고 언제든지 연구하면서 그 어느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남들을 살려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노력은 결코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바로 전하고 옳게 전하고 남들이 듣고 살도록 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다가 생명을 잃었다면 어쩍니까? 그것이 아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 귀한, 하늘에서도 귀하고 땅에서도 귀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내 전부를 팔아서 산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⁴⁾

그의 설교 강조에는 늘 동반되는 것이 있었다. 기도와 성령의 감화였다. 그에게 말씀, 기도, 성령은 설교자가 능력 있는 설교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할 분리할 수 없는 요소였다. 능력 있는 설교는 이 세 요소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다. 기도 없이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감화 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깊이 깨달음이 없이 참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암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같은 해 인천노회 목회자 특강에서는 이렇게 외쳤다.

성령의 감화 없는 일군은 평생에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성령의 감화는 성경 말씀에 나 자신이 깊이 들어가서 내가 녹아질 때에 되는 겁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연구하고 아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진의를 맛보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4) 박윤선, “우리의 개혁.”, 1984, 개교4주년기념 설교, 설교테이프 제5집

그 지경에 들어가서 나 자신이 녹아지는 때에 성령의 감화를 나 자신이 체험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화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깊이 안 들어가고서 어떻게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겁니까? 그렇게 천단하고 피상적으로 노는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피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서 얻기까지 힘쓰는 이 진실, 그저 뭐 하는지 마는지 하는 이러한 껍데기 수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과연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유사 이래에 모든 참된 사람을 만들어 놓은 성령의 감화의 말씀인데 어찌해서 이 말씀을 멸시하며 경시하고 깊이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겉으로만 이것을 취급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참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화는 기도에 녹아져야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저 겉으로만 기도하고 껍데기 수작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체하고, 마지못해서 한 순서를 가지는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주님께 매달리우는 일이 있어야만 되고, 주님에게 나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없이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성령의 감화 없이 주님을 위한 일을 참되이 이루지 못합니다.⁵⁾

정암의 교수 사역 전환점으로서 합신

정암 박윤선은 1980년 11월11일 합신이 합동신학원으로 개교하고 일주일 후인 11월 18일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렇게 말년의 사역을 합신에서 시작하여 1988년 6월30일 소천하기 까지 8년 동안 합신과 함께 하였다. 그가 합신에서 가르친 이 8년의 기간은 고신에서 가르친 14년(1946. 9~1960. 10)이나 총신에서 가르친 13년여(1963. 3~1974. 11, 1979. 3~1980. 10)의 기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합신에서 8년 동안의 가르침

5) 박윤선, “복음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모범,” 1984, 인천노회 특강, 설교 테이프 제5집

은 단순히 8년이라는 시간적 길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가 합신에서 몸을 담은 것은 단순히 그간 해왔던 신학교 교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한국교회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과 문제의 본질 파악, 그리고 대안에 대한 결론과 그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오는 중대한 결단에서 온 결과였다. 심각하게 부패한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인식, 한국교회의 핵심 문제는 목회자 문제라는 통찰, 그러므로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개혁이며 그 개혁을 이룰 결정적인 방편은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는 주석집필에 전념하느라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주력하지 않은 실패한 신학교수로 살아왔다는 자기 성찰을 하고 있었다. 정암이 합신에 몸을 담은 때는 그의 주석이 이미 완간된 후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신은 부패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말년을 쏟아 넣겠다는 결단을 하였고, 합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는 입버릇처럼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라는 말을 하곤 하였다. “한국교회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다”, “한국교회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라는 말도 자주 하였다. 심지어 미국에서 가진 한 목회자 집회에서는 “비율로 볼 때는 목사가 평신도보다 지옥에 갈 사람이 더 많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 합신 합류는 단순히 신학교육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바른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에 남은 일생을 거는 중대한 전환점이기도 하였다. 그가 합신에서의 가르침에 생사를 건 사람처럼 열정을 쏟은 이와 같은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제는 “뼈에 사무치는 열정을 가지고 일생 동안 수행한” 신학연구와 주석, 그리고 설교를 모두 합하여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쏟아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합신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기는 신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주석 집필에만 전념하느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자기 성찰 혹은 자책감 이었다. 그러니 합신에서는 이제 그 일에 전념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를 애썼고 어느 때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며 격려하였다. 거의 언제나 그와 동행했던 이화주 사모님의 손가방 안에는 언제나 검은 비닐 커버의 두꺼운 수첩이 들어있었다. 사모님과 정암의 기도 제목 수

첩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동문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어 기록을 하였다. 낡은 비닐 표지의 그 수첩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빼곡이 적혀 있곤 했다. 유영기 교수가 전해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합신에서 학생들을 대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정암이 합동신학교 원장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논자(유영기 교수)에게 “나는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40년이 넘게 신학교 교단에서 가르쳤으나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암이 바로 가르치지 못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암은 자신이 성경주석 완간에 전심하다 보니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배우는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무슨 바른 교육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정암이 합동신학교 원장이 되셨을 때는 주석을 완간한 후였기에 그가 본향에 가실 때까지 고려신학교 때나 총회신학교 때보다 가르치는 강단에서나 사석에서나 더욱 제자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경건한 삶을 전수하고 가셨습니다.⁶⁾

2. 정암 박윤선, 기도의 사람

기도라는 관점에서 정암 박윤선을 접근할 때 우리가 얻는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 자신이 “죽기 내기”로 기도를 힘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암 박윤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기도예 전념하는 삶을 살았는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제자들과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며 가르치기 이전에 본인이 철저한 기도의 삶을 실천한 기도의 사람이다. 정암의 평양신학교 시절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의 평생의 기도 생활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그야말로 기도 일관의 삶을 살았다. 서영일이 방지일 목사 및 홍치모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전하는 평양신학교 시절의 정암의 기도 생활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하다.⁷⁾ 정암의 기도생활에 대한 일화들은

6) 유영기, “정암 박윤선의 신학”, 『죽산 박형룡과 정암 박윤선』 (제17회 정암신학강좌,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324-325.

7)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장동민 옮김(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100.

박윤선, 김진홍과 더불어 기도의 3총사로 알려져 있는 방지일 목사의 증언과 정암이 자신의 자서전 그리고 설교 가운데서 간간히 밝힌 기도에 대한 회고담 등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김명혁 교수는 정암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박윤선 목사가 마지막 병상에 누워있던 1988년 6월 마지막 주간 나는 거의 매일 박윤선 목사를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그 때야말로 기도로 일관한 기간이었다. 마치 성 어거스틴이 마지막 열흘간을 기도로 일관했던 것과 같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 해주었다. “여기 누워 있기보다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윤선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소위 ‘박 목사의 의’를 모두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다가 6월30일 새벽 6시3분 경,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 박윤선 목사는 기도로 그의 생을 일관하시다가 기도로 그의 생을 마쳤다. ‘여주동행’, ‘기도일관’은 그 분의 삶의 표어였고 그 분의 삶의 모습이였다.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일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가 1986년에 있었던 교역자 수양회에서 행한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할 일이 기도 아닙니까? 세상 뜰 무렵에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 볼 때에 우리가 대답할 것은 기도입니다”라며 세상 떠나는 순간에 해야 할 것은 유언이 아니라 기도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시종일관 중요하니 만약 제일 중요한 일을 떠올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에 이 기도가 생각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3. 정암 박윤선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정암은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쉬임없이 촉구하고 강조한 것도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이루어온 신학도 주석도, 그리고 설교도 궁극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만 바르게 혹

8) 김명혁, “박윤선의 기도,” 「신학정론」 제14권 2호(1996) 255.

은 능력 있게 효과를 나타내어 목회자 본인과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한 마디로 요약된다.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는 기도론을 연구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라고 외쳤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였음에도 기도론을 개진하는 단행본을 발간하지 않았다. 기도는 연구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곧 기도는 **하는 것**이라는 그의 지론의 결과일 것이다.

나 자신도 기도와 관련하여 정암과 얽힌 사연이 있다. 84년 12월14일, 불광동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이었다. 졸업을 일주일 앞둔 합동신학원 5회 졸업생들의 사은회가 그곳에서 있었다. 사은회의 마지막 순서는 우리가 교수님들 앞을 일렬로 서서 지나가며 악수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었다. 물론 나도 그 대열에 끼어 교수님들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내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나는 의례적인 말씀으로 알고 대답하였다. “예.” 그리고 지나가려하는데 교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는데, 교수님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라구!”** 나는 다시 대답하였다. “예” 그분은 그제서야 내 손을 놓아주셨다. 물 흐르듯 잘 흘러가던 학생들의 대열이 멈추어 서고 잠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났다. 나는 지금도 그 때 박 목사님의 그 음성과 그 어투를 그대로 흉내 낼 수 있을 만큼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자리로 돌아온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얼굴이 화끈거렸다. “기도하지 않고 뻥질거리는 알미운 전도사.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고 위태위태한 걱정거리 제자.” 틀림없이 그 심정이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비장하게 결심을 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생명처럼 알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반드시 되고야 말겠다!” 박윤선 목사님은 나에게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신념을 갖게 하신 분이시다. 나의 심장에 기도의 열정을 심어주신 선생님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나의 후배들과 제자들을 향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되게 해 주신 분이시다. “나는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재주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는 같이 일하지 않는다!” 내가 목회할 때 새벽기도 하기를 힘들어 하는 부교역자들에게 가끔씩 했던 말이다. 나는 그것을 박윤선 선생님에게서 배웠다. 확언하건데,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신앙 활동은 결국 헛것이다.

이미 밝힌 대로 정암은 자신이 평생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기도를 극도로 강조하였다. 그의 기도에 대한 강조는 신학교의 운영과 신학 연구 작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합동신학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다음 해인 1981년에 행해진 한 인터뷰에서 합신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기자에게 **“기도를 정밀하게 하는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어서 ‘학문이 귀하고 학문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하지만, 학문 일변도의 신학은 자유주의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⁹⁾ 정암은 1985년에 있었던 동문 수련회 설교에서도 이론에만 치우친 신학교육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기도 없는 학문 활동을 깊이 우려한다. “신학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병이 날 정도로 몸을 끌고 다니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이론주의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타락하게 되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탄소리를 하게 된다고 단언한다.¹⁰⁾ 정암은 신학운동은 학문 운동임과 동시에 기도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도없는 연구 작업은 마침내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되며, 참된 기도로 뒷받침하는 신학 연구라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고 주장한다.¹¹⁾

이미 밝힌대로 정암은 기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과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설교나 강의 등에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한다. 기도를 주제로 삼지 않은 설교에서도 자주 자주 기도를 강하게 언급하곤 한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의 기도에 대한 언급과 가르침들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이 강의에서 제시하는 정암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나름대로 내린 결과이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항상 기도하라 2) 참된 기도를 하라 3) 기도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4) 설교에 기도로 불을 붙이라. 이 강의는 이와 같은 항목 아래 각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의 어록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지면과 시간관계로 몇 개의 대표적인 어록을 제시하였으나. 나의 저서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에는 더 많은 어록들을 제시하였다.

9)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합동신학보』 1(1981년 9월 5일) 335에서 재인용.

10) 박윤선, 야고보의 기도관, 1985, 합신동문수련회 설교, 설교 테이프 제6집.

11)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수원: 영음사, 1992) 95.

1) 항상 기도하라

정암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는 설교 가운데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자주 언급한다. 그는 강의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얼굴도 보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매어달려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을 바꾸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신자를 미워하신다”고 하면서 기도 할 것을 도전한다.¹²⁾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을 자포자기하는 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¹³⁾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¹⁴⁾ 우리가 신자로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를 하는 것이며, 그것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기도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주제이다. 그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

(1) 투쟁적으로 힘쓰는 기도

정암은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 없이 강조한다. 기도는 힘써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기도론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기도를 힘쓰지 않고는 도저히 기도가 안된다고 단언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하는 특유의 여러 표현들이 있다. “**생사 결단의 기도**”, “**자기를 던져 넣는 투신의 기도**”, “**피나는 기도**”, “**투쟁적으로 힘쓰는 기도**”, “**죽기내기로 하는 기도**”, “**전심기도**”, “**전력기도**”, “**마음이 타는 기도**”, “**따가움이 있는 기도**” 그는 그렇게 힘써서 하지 않는 기도를 가리켜 “**에누리 기도**” 혹은 “**겉데기 기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암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해야 될 것은 유언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할 만큼 기도를 강조한다.

기도하는 것도 역시 한 번 생사를 결단해야 되겠는데 생사 결단할 용의가 전혀 없고 그저 에누리 기도해요. 에누리 기도, 기도라는 것

12) 박윤선, “기도의 유익”, 1983, 설교 테이프 제9집.

13) 박윤선, “야고보의 기도관”, 1985, 설교 테이프 제6집.

14) 박윤선, “예배 행위로서의 금식기도”, 1986, 설교 테이프 제10집.

은 이렇게 쓰는 겁니까? 그렇게 무효하게 또 효과가 날 수 없는 앞은 수준에서 그저 껍데기 수작으로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성스럽고 엄숙한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천단하고 껍데기 수작이요, 몸을 던져 넣지 아니하며, 정신을 투자하지 아니하며, 그저 이렇게 소홀하게 지나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신을 하여야 합니다. 15)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할 일이 기도 아닙니까? 세상 뜰 무렵에 할 일이 무엇이나? 물어볼 때에 우리 대답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기도야? 유언이 아니고? 내 앞에 모여 앉은 그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일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시종일관 중요하니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이 기도가 생각나야만 되겠습니다.¹⁶⁾

기도를 힘써야 삽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같은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즉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본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는데, 우리를 살려주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 말이에요. 맥 놓으면 안된다 그말이지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써야 게으름을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합니까? 게을러서 못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합니다.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안합니다. 그 속에는 하기 싫은 성질이 있어요. 그렇게 부패했습니다.¹⁷⁾

(2) 평소에 하는 기도

평생토록 평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야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그 동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씌먹으려는 기도가 되어 허사가 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정암은 평안할 때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며, 평안하므로 기도

15) 박윤선,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1985, 설교 테이프 제9집.

16) 박윤선, “파수꾼의 밤이 어찌 되었느냐”, 1986, 설교 테이프 제8집.

17) 박윤선, “교회의 살 길”, 1982, 설교테이프 제12집.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연히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아도 사실이 아니라고 소리를 높인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수단을 강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므로 기도하지 못한다. 또는 낙심하여 절망에 빠지게 되므로 기도를 안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평소기도를 강조한다. 평소에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이라야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어려운 일이 닥쳐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본 경험이 쌓인 사람이라야 평소에도 여전히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도를 하며 사는 것을 놓고 평생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힘들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자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부담이나 올무가 아니다. 십자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큰 복이다.

기도를 힘쓰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또 사람이 평안해지면 쾌락에 기울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안한 시절에도 역시 힘써야 기도가 되는 것이예요. 환난 때에는 낙심이 나서 기도를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쓰지 아니하고는 기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¹⁸⁾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해야 되겠는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니 그 기도의 동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써 먹으려는 그러한 의도로 나타나니 그런 정도의 기도는 대부분 허사가 되기 쉬워요. 우리는 평생 기도를 힘쓰며 육신을 제쳐놓고, 이건 아무래도 죽을건데 내가 여기 종살이 하겠나?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며 쌓아 나오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더욱 더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과연 기도도 참되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편리를 위주하다가 기도를 못해요. 뭐 그만큼 편리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고 저렇게 편

18) 박윤선, “기도를 힘쓰자”, 1980, 설교 테이프 제1집.

리를 도모하느라고 육신은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당할세라 하고 육신 제일주의로 나아가다가는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¹⁹⁾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는 그런 때에도 주님에게 매달리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매달려서 나 자신의 어떠한 지혜와 내 자신의 어떠한 수단으로 그 역경을 면해보려고 하고, 그 역경에서 내가 쉬운 길을 얻어 보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란 말예요. 그런 역경을 당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가 또 문젭니다. 보통으로는 기도 안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남의 기도를 판단은 못하겠으나,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하나의 사고방지를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에 그것은 욕심의 기도라고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역경이란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할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쉽사리 우리 자신의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데로 쏠리기 쉬우니까, 우리 신자들은 힘쓰지 아니하면 기도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힘쓰니까? 평소에 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지요.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참된 기도자로서 살아가다가 역경을 당할 때 더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맞는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²⁰⁾

정암은 자기 자신이 평소기도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떻게 애를 썼는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도 한다. 목회자들에게 신자들이 평소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에 설교를 길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새벽기도회에서 목회자들은 신자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 오래 하는 기도/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

19) 박윤선,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결”, 1985, 설교 테이프 제5집.

20) 박윤선,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 1985, 설교 테이프 제12집.

정암이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한다는 의미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암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여 오래 하는 기도,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말을 오래 그리고 많이 하여 기도의 공력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가 물론 아니다. 정암이 시간을 투자하여 오래 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연약하여 기도하려고 앉았다고 하여 곧바로 기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며,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곧바로 일어서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며 기도를 하려고 애쓰다 보면 드디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기도를 밤낮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랫동안 해야 그 가운데 참된 것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땅에 경작을 하려면 많이 경작해야 조금 곡식을 거둡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땅이에요. 쉽게 참된 그 세계에 접촉이 잘 안되거든요. 하나님은 참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분은 헛된 것과 관계 안해요. 헛된 것을 동정하며 헛된 것과 융통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진실치 못한 거죠. 과연 많이 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바쳐서 기도하는 중에 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그래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니예요. 그러나 직장도 그만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규칙을 지켜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규칙 지켜서 기도하고 낮에도 규칙 지켜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그 일이 일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성의 있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밀어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소를 지킨다는 것도 중요해요²¹⁾

21) 박윤선, “기도 응답의 보장”, 1985, 설교 테이프 제3집.

모든 시간은 기도를 위하여 있다는 말이 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시간은 기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라고 판정내려야 되겠습니다.모든 시간은 기도하기 위한 기회라고 우리는 알고 느껴야 될 것이올시다. 기도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신자들도 기도를 위하여 시간 바치는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기도를 거의 안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신자들이 제일 등한히 하는 것이 기도요, 걸날림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 우리로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느라고 했는데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꿇어앉아서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원컨대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많이 많은 사람은 아마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참 힘있게 기도할 연령들입니다.²²⁾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규칙 생활을 하려면 힘써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력저력주의로 나가는 것은 하는 것도 아니예요. 결국 그것은 마구잡이고 그것은 허투로 마투로입니다. 그것은 하는 게 아니예요. 무슨 일이나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일이 아니예요. 규칙적으로 힘써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일이고, 이것이 과연 기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기도입니다.²³⁾

(4) 응급 기도

응급 기도는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기도를 말한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하

22) 박윤선, “한나의 기도(1), 1984, 설교 테이프 제2집.

23) 박윤선, “기도를 힘쓰자”, 1980, 설교 테이프 제1집.

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써먹으려는 잘못된 기도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응급기도에 대하여 경고한다. 그리고 실제로 있어서 너무나 급박하고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놀라거나 짓눌려서 사실은 염려와 걱정에만 사로잡히게 될 뿐 기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실상은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를 힘써서 해오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응급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정암의 주장이다. 그러나 응급기도를 제대로 할 때 그 기도가 주는 유익을 두 가지로 강조한다. 첫째는 환난을 당하여 비로소 주님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또 앞으로 계속하여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돌아보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응급 기도는 상황이 다급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여서 말의 표현을 잘하려는 노력 같은 것이 없이 그저 안타까움으로 매달리는 것이므로 외식이 없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환난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응급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응급적인 기도. 그것은 조금 심리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니 주여! 한탄 말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저 다른 때 늘 기도 안하다가 딱 어려워지니까 주여! 그럴 때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심리가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려운 때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려운 때 보통으로는 혹 기도 못하다가도 어려운 때 주여! 하고서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 이제부터라도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이제부터라도 기도를 계속 할 것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요. 요놈 뭐 주여 하지만 내일은 안 그럴 놈이야 그따위 놈들은 안 돌아봐요. 응급적 기도가 장점도 있습니다. 위급하니까 외식을 섞지를 못해요. 평안할 때에 기도할 때는 외식을 많이 섞습니다. 형식을 많이 섞습니다. 기도에도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도 역시 너무 평안히 해요. 그러나 위급한 때에 기도할 때 뭐 어느 한가에 외식하느냐 말이요. 형식이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주님을 대면해서 하지요.²⁴⁾

(5) 특별기도

특별기도란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혹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기도의 방식을 정하여 시행하는 집중 기도를 말한다. 정암은 그것이 주님의 기도생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산중에 가서 기도하며, 들에 가서 기도하며, 특별한 장소에 가서 매달리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항상 하는 기도, 밤낮 하는 기도가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평안할 때는 특별 기도를 해야 돼요. ... 이것은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한 사흘이든지 시간을 내고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어디 가서 앉을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혹은 먹으면서 기도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특별기도예요. 사업도 귀하지만 사업도 조금 놔두고 기도해야 살겠다 그 말이에요. 평안만 하면 타락해요. ... 평안하면 평안해서 타락하고, 괴로우면 괴로워서 타락하니,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괴로울 때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안할 때에 특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기도를 해서 멸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평안한 것이 위험해요.²⁴⁾

특별 기도를 하는 그것이 있어야 항상 기도가 되어 지고 밤낮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 기도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혹은 두 달 만에 한번이든지 산중이나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몇 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든지, 혹은 금식은 안하더라도 거기 가서 자기 자신을 검토했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특별기도예요. 추운 겨울날 방안을 따뜻하게 하려면 불을 많이 때야 되지요. 지금은 난방장치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되어 갑니다만 우리가 전 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을 땁니다. 온돌에 불을 많이 때 놓으면 방이 따뜻해 가지고 몇 날 동안 따뜻해요. 그와 같이 특별 기도를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특별기도는, 이것 온돌에 불을 한몫 많이 땀 것과 같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기도를 많이 집중적으로 한다면 오랫동안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

24) 박윤선, “기도의 유익”, 1983, 설교 테이프 제9집. cf. “기도 응답의 보장”. 1985, 설교 테이프 제3집.

25) 박윤선, “기도의 유익”, 1983, 설교 테이프 제9집.

로 기도가 이제 말한 대로 탄원의 기도도 되고 응급의 기도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밤낮 기도,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²⁶⁾

(6) 극복해야 할 기도의 장애물들

정암은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투쟁하며 기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이 평안해지면 쾌락에 기울어져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환난 때에는 낙심이 나서 기도를 또 못한다. 그러니 기도를 힘쓰지 않고는 기도할 방법이 없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귀하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정암의 일관된 태도이다.²⁷⁾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는 설교에서는 아래 인용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장애물을 길게 다루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의 기도 생활의 장애물로 지적하는데, 첫째는 향락이나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역경이요, 세째는 사상적 반동이 그것이다.²⁸⁾

첫째로는 향락이나 쾌락을 누릴 마음이 늘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쾌락이라는 것이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도를 막는 것이예요. 인생 한평생이 길지 못하고 그 중에 청년 시기가 또 길지 못하는데 이 청년의 시기를 쾌락이나 생각하고 평안이나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 다니다가 이 청춘을 다 보내고 나이 많아 가지고는 할래야 할 수도 없어지는 이러한 실패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쾌락, 쾌락, 편리한 이 육신이 좋아하는 이것들은 너무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그것이 전쟁을 펴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이것이 제일입니까? 이 쾌락과 안일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라도 찾아나가야 할 그러한 목표이겠습니까? 결단코 아니지요. 우리는 다행하게도 주님께서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 하는 결심 하에서 성경을 알아보기를

26) 박윤선, “기도 응답의 보장”. 1985, 설교 테이프 제3집. cf. “기도의 유익”, 1983, 설교테이프 제9집.

27) 박윤선, “기도를 힘쓰자”, 1980, 설교 테이프 제1집.

28) 박윤선,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 1985, 설교 테이프 제12집.

원하고, 신앙생활을 의식적으로 해보기를 원하며, 체험적으로 해보기를 원하는 따가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이는 줄 아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쾌락주의, 이 안일주의를 외면하지 않아가지고는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경을 당할 때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는 그런 때에도 주님에게 매달리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매달려서 나 자신의 어떠한 지혜와 내 자신의 어떠한 수단으로 그 역경을 면해보려고 하고 그 역경에서 내가 쉬운 길을 얻어 보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란 말예요. ... 그런고로 역경이란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할 마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험사리 우리 자신의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데로 쏠리기 쉬우니까 우리 신자들은 힘쓰지 아니하면 기도를 못해요.

세째는 사람이 사상적 반동으로 기도를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좋은 일인데도 거기 반동적으로 또 비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비뚤어진다 말예요. 뭐 그래야만 되나 난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못 가져요. 사람의 마음을 관할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육신의 편리를 위주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된다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심리, 그리고 평안한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평안을 잃고라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 평안을 누리고 기도 생활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러므로 그는 지속적인 기도생활을 위해서는 차라리 평안을 가져가고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만하다고 말한다. 그는 소위 “강청하는 기도”는 이 못된 육신이 기도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전투적으로 누르며 죽이며 치는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에게 붙어 있는 육의 생각이 이 기도를 그렇게 방해를 해요. 이 기도를 못하도록 공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쟁적으로 힘쓰지 않아가지고는 이걸 못합니다. 투쟁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난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렸는데 내가 투쟁을 안한다는 말인가? 앉아서 죽을 판인데, 평안한 자리에서 내가 죽을 판이냐? 밥을 먹으면서 죽을 판이야? 대접을 받으면서 죽을 판이야? 내가 왜 앉아서 죽어, 싸우다 죽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육으로 더 붙어 계속 전쟁하면서 싸워나가면서 기도를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²⁹⁾

우리의 육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특별히 기도를 늘 못하게 하는 그 심리입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기도를 막는 그 못된 것이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성질이 무엇이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에 도무지 통해지지 아니하는 못된 것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 독한 소질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어느 틈에라도 핑계하며 기도 안하려고 해요.³⁰⁾

우리가 육신의 편리를 위주 하다가 기도를 못해요. 뭐 그만한 편리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고 저렇게 편리를 도모하느라고. 육신은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당할세라 육신 제일주의로 나아가다가는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³¹⁾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심리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인간의 노력을 보람되게 느끼는 그 마음 자세에서 그렇게 됩니다. 목사들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그 심리 때문이지요.³²⁾

29) 박윤선, “파수꾼의 밤이 어찌 되었느냐”, 1986, 설교테이프 제8집.

30) 박윤선, “강령하는 기도”, 1985, 설교 테이프 제3집.

31) 박윤선,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결”, 1985, 설교 테이프 제5집.

2) 참된 기도를 하라

정답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참된 기도 혹은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진실된 기도”, “참된 기도”, “법대로 하는 기도”, “기도다운 기도”, “영적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만한 기도”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그가 참된 기도라고 여기면서 강조하는 기도의 유형 혹은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영적인 기도/하나님 중심의 기도+

정답은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상대로 한 것이며, 하나님의 일과 관련을 맺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것을 그는 영적인 기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도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다. 그는 바리세인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주제로 한 설교에서 바리세인의 기도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윤리의 이상화, 금식의 이상화, 십일조의 이상화, 사람들(여론)의 이상화, 자기 자신의 이상화의 기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가짜 경건이요,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자기부정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붙는 서원을 가진 기도라고 평가한다.³²⁾

참된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은 우리의 몸보다 하나님의 성령과의 관계 점에서 무엇이 잘되가는 걸 원하시지요. 우리의 존재가 성령과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라. 그런고로 우리 육신 관계로 되어진 기도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영적인 그 중요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해요. 그런고로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

32) 박윤선,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1985, 설교 테이프 제9집.

33) 박윤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1987, 설교 테이프 제17집.

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경청하실 만한 기도가 몇 개가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영적으로 하십니다³⁴⁾.

(2) 진실한 기도/사욕이 없는 기도

정암이 참된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강조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이다. 그가 말하는 진실한 기도란 무엇보다도 허영으로 하지 않는 기도이다. 그는 허영심으로 사느니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진실이 있게 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그에게 있어서 진실한 기도란 또한 사리사욕이 없는 기도를 말한다. 그는 남을 위한 기도가 잘 응답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것이 사리사욕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기도가 선한 기도라고 말한다.

나 밖에 모르는 사람은 늘 괴롭습니다. 나 밖에 모르는 사람은 늘 얼굴을 찡그리고 삽니다. 나 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늘 지옥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걷습니다. 나 밖에 모르는 사람은 죄 밖에 지을 것이 없어요. 한 평생을 잘못 하는 거예요.³⁵⁾

(3)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정암은 우리의 기도가 목표하는 것은 무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참된 기도의 하나로 강조한다. 정암은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교만이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거의 전부가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강조한다.³⁶⁾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 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도 강한 비판을 가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천하 만민의 구주로 인정하는 기도이며, 그것은 선한 기도라고 말한다.

34) 박윤선, 앞의 설교.

35) 박윤선, “기도를 힘쓰자”, 1980, 설교테이프 제1집.

36) 박윤선, 앞의 설교.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한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있으니 그걸 나는 안 하겠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남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도 된다는 이런 교만이 그런 주장에는 끼어 있는 거예요. ... 성경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 거의 전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나는 되었다. 나는 입이 고상해서 남들을 위한 말은 하겠지만 나를 위한 말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은 좀 고상해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살 수 있고 불쌍히 여겨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나는 망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것이 진리입니다.³⁷⁾

참된 기도는 대부분이 자아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남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백번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중심해서 기도한다면 거의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참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줄 생각을 해요.³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는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려고 이렇게 목적하셨는데 기도하는 나 자신은 너무 빈

37) 박윤선, 앞의 설교.

38) 박윤선, “기도가 목표한 세계”, 1985, 설교 테이프 제11집.

약하게 기도하더라 그말이에요. 너무 빈약해요. 다른 민족에 대한 그 애착심이 너무 없고 다른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정성의 움직임이 전연 없고 이렇게 마비된 그 심령과 같이 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³⁹⁾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주이심을 알아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혹시 잘못 생각하기를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구주인 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해보라고 하면 그렇게는 말 안하겠죠. 천하 만민을 위한 구주입니다. 그렇게 말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자기만 위한 구주인 듯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드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자세가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⁴⁰⁾

(4) 전심기도/인격적 헌신의 기도

정암은 전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참된 기도의 중요한 요건으로 여긴다. 그가 전심기도라는 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전심기도와 정신집중 기도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강조한다. 전심기도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혹은 어떤 상태에 집중하여 몰아지경에 이르고 그리하여 그러한 상태에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는다. 그러므로 그는 전심기도란 정신집중이 아니라 인격헌신 기도라는 사실을 거듭 힘주어 강조한다.

전심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찾아와도 만나줄 수 없다, 또 어느 다른 방면에서 무슨 해결이 있다 해도 난 그것 듣지도 않는다.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는 매달린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는 향한다. 이것은 정신 집중을 의미하는 것 아니

39) 박윤선, 앞의 설교.

40) 박윤선, 앞의 설교.

고요, 인격의 봉헌으로서, 인격을 드려 바치는 것으로 단일성의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 집중을 불가결의 요소로,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신 집중이라는 것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정신집중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안되지요. 이것은 인격의 집중, 인격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바침이 되는 것을 원하고, 전 인격이 주와 관계를 맺어서 주님에게 매어달리는 식으로 전 인격을 하나님 장중에 드려 바치며 혹은 하나님에게 전 인격으로 매달리는 이것이 전심의 기도입니다.⁴¹⁾

(5) 혼자 하는 기도/외식 하지 않는 기도

정암은 “혼자 하는 기도”를 참된 기도의 한 형태로 강조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말한다. 즉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정암이 말하는 “혼자서 하는 기도”는 첫째는 기도하는 마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요, 둘째는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공간적, 상황적 혼자 기도를 말한다.

혼자만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귀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 가지고도 자타를 물론하고 외식하게 되는 시험을 받아요.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더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훈련이 없고, 한적한 자리에서 기도해서 재미 보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강단에 나서서 대중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을 위주하므로 젊었을 때에 외식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사람 상대로 말을 꾸미며, 사람 상대로 그들이 한번 흐뭇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겉핥기 잘못하면 제일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쉽습니다. 젊어서 목사 되어 가지고서 강단에서 시작하는 때부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조심해도 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 혼자만 알 수 있는 기도

41) 박운선, “히스기야의 기도”, 1983, 설교 테이프 제4집.

들어가지 아니하면 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아는 기도 이것이 그렇게 귀한데 이 기도를 너무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⁴²⁾

(6) 강청하는 기도/파렴치한 기도

정암은 “강청하는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1:5-8절을 본문으로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철면피적인 기도”라는 말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구를 정의한다. 그리고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기도가 그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이며,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강조한다. 같은 본문으로 행한 다른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기에는 무례하다 할 만큼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단언한다.⁴³⁾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면피적으로 가서 막 달라고 들이대야 되는데, 이것 안하거든요. 너무 경우를 따지고, 그저 겉으로만 돌고, 하는 체만 하니 이것 되겠어요? 자는데 가서 문을 탕탕 두드리고, 그저 내라 내라 하는 식이라.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철면피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심판자이시며 그는 영광 중에 계시는데 죄 중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피조물 한 개가 와 가지고서 뭐 이런 소원, 저런 소원을 진술하면서 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이와 같은 기도자는 너무도 강하게 두드려대니까 이것은 참 뻔뻔스럽다 그 말 이에요. 내가 무엇입니까? 이건 피조물로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가서 기도를 이렇게 아주 힘 있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사랑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생들이 너무도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습니다. 신자들조차도 너무 기도를 안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너무도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만큼 하나님이

42) 박윤선, “한나의 기도(2)”, 1984, 설교 테이프 제2집.

43) 박윤선, “강청하는 기도”, 1985, 설교 테이프 제3집.

소원하는 것은, 무엇을 해서라도 사람들이 내 문을 와서 두드리는 것을 원한다 그 말 이에요. 이 인생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라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령의 기도라 그 말 이에요.44)

(7) 음성으로 하는 기도/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

정암은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소리를 내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가 음성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는 자기가 무엇을 구했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기도해야 응답에 대하여도 분명히 확인이 된다는 것과, 둘째는 묵상으로만 기도할 때 자칫 생각이 혼미해져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모습만 갖게 되거나 혹은 그것이 기도인지 혹은 개인적인 상상인지 애매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기도와 명상은 다른 것이며, 기도가 자칫 명상에 그치고 말 위험을 그는 음성으로 하는 기도로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요구가 마음속에만 있는 동안에는 흐릿합니다.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살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움직임을 못가져요. 흐리멍텅해요. 그런고로 사람과 말할 때도 음성으로 말을 해야 분명해요. 하나님과 말씀할 때도 음성으로 말해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의 움직임을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인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요구를 주님이 알아주실 텐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한 가지를 가지고 백 가지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할 때에 자신도 이건 정말 기도 응답이라 깨달을 수 있게 하려니까 음성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감찰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한 나도 아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마음 가운데 숨겨두고서 소원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도 분명치 않거든요. 자기 자신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가슴 속에 있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일을

44) 박운선, “응답되는 기도”, 1984, 설교 테이프 제2집.

해주셔도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인정을 안해요. 기도 응답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 하나님이 주셨다, 분명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기도응답 받고 계속 그 힘으로써 계속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개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음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상대할 때에 그저 정신 빠진 사람처럼 상대하지 말라 그 말 이에요. 그저 상대방과 지금 대화하듯이 분명히 믿고 확실히 줄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똑똑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⁴⁵⁾

3)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정암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시121:4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늘 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는 그 말씀을 기도응답을 보장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⁴⁶⁾ 또한 롬 8:26-27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장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한다.

(1) 기도 응답의 확신

정암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되니 그것이 큰 기쁨이고 또한 은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니, 기도 응답의 확신은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데로 나아간다는 사

45) 박윤선, “기도의 유익”, 1983, 설교 테이프 제9집.

46) 박윤선, “강령하는 기도”, 1985, 설교 테이프 제3집.

실을 강조한다.⁴⁷⁾ 정암이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그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확실한데도 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은 그야말로 샘물이 팔팔 나오는 옆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고, 그것이 어두워진 인생의 모습이라고 지적한다.⁴⁸⁾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만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단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기도에 전념하게 할 수 있을지 답답해한다. 그는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만사가 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해야 여러분이 이 말을 받겠는지 마음에 숙제로 있습니다. 교회 정치꾼들은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또 그저 이 회의 저 회의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을 붙잡아가고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을 누구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별 수가 없어요.⁴⁹⁾

기도는 참으로 응답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잘하려고 힘씁니다. 그렇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는 다 들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로 응답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안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못 들으셔서 안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들어주시면 안 되겠기 때문에 안 들어주셨고, 또 지금 당장 들어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어도 지체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다 들으셨어요. 주님이 모르시고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⁵⁰⁾

47) 박윤선, “기도생활에 만전을 기하자”, 1982, 설교 테이프 제5집.

48) 박윤선, “강령하는 기도”, 1985, 설교 테이프 제3집)

49) 박윤선,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1985, 설교 테이프 제9집.

50) 박윤선, “기도의 유익”, 1983, 설교 테이프 제9집.

(2) 적극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정암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양상을 몇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적극적 응답과 부정적 응답이다. 적극적 응답이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 응답이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암은 우리 기도에는 응답되는 기도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 사실 정암은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그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정암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한다. 첫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그대로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일종의 기도 응답이다. 정암은 이것을 부정적 의미에서 기도응답이라고 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다른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간구하는 신앙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부러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암은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고 확언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응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 의미에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적극적 의미에서 응답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또 구하되 참으로 구하니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치 않은 것은 주지 않아요. 또 참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⁵¹⁾

그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준다고 믿는 믿음을

51) 박운선, “기도의 유익”, 1983, 설교 테이프 제9집.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내가 구한 것은 그대로 다 준다고 믿는 것은 “병적인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주권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오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주권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다 모른다는 것. 따라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동시에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주시는 것도 내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안 주시므로 내게 유익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전갈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 해야 되겠는데 뱀을 달라 할 적에 그것 주겠습니까? 안 줘요.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생을 시키는 수도 있습니다.⁵²⁾

(3) 즉각적 응답과 지연되는 응답

정답은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실은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향한 깊은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하다고 강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응답해 주는 예가 매우 드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간은 덜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쉽게 줘 버리면 헤 이해지고 말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대번 받지 못했어도 참아 나가면서 기도하는 그 신앙을 육성하기 원해요. 그런 고로 응답은 못받으면서도 기도하는 그 기특한 기도의 태도가 귀합니다.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겁니다. 거기서 과연 그가 기도의 맛을 보고 땀 수 없는 그 내용이 거기 드러나는 것이올시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귀합니다.⁵³⁾

52) 박윤선, “보편주의 측면에서 본 기도”, 1985, 설교 테이프 제3집.

(4) 깨닫지 못하는 응답

정암은 1987년도 케직사경회에서 “나의 생애와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였다. “기도응답”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삼은 그 특강에서 정암은 기도 응답의 양상을 “깨닫지 못하는 기도 응답”과 “확실히 알려진 기도응답”, 그리고 “작정의지 혹은 은밀의지에 의한 기도 응답”으로 나누어서 말한다. “깨닫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란, 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기도해놓고도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이다.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한 기도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기도 응답이 우리가 구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응답받았다고 깨닫기 어려운 경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응답을 하신 경우이다. 셋째는, 우리가 한 기도의 성격이 우리가 그 응답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로 확인하기가 힘든 기도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경우 그 응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다.⁵³⁾ 정암은 응답을 확인할 수 없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에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도전한다. 그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와 관련하여 이 점을 강조한다. 그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어떤 반응이나 현상을 동반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면 그것이 문제는 아니 예요. 기도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펴뚝해지고, 말할 때에 실감이 나고 그래야만 꼭 되는 건 아니예요. 그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리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천

53) 박윤선, “기도를 힘쓰자”, 1980, 설교 테이프 제1집.

54) 박윤선, 나의 생애와 기도생활”, 1987, 설교 테이프, 제16집.

지는 변할지언정 이것은 못 변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첫째예요. 믿고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당장 무슨 뜨거워지는 것이 없고, 뭐 실감이 나서 그야말로 기도를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별반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진리요, 진리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기도한다 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해요. 그렇게 그 기도를 하고 무슨 소리도 못들었고, 마음에 실감도 별로 안났고, 뭐 뜨거워지는 일도 없고 그랬다 해도 그건 문제가 아니예요. 이렇게 해 나가노라면 실감도 나게 되고, 차차 일이 되가는 것이고, 또 오래 동안 실감이 안나도 괜찮고, 이것이 첫 째 되는 기도라고만 이렇게 알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선 나 자신에게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시는 거예요.⁵⁵⁾

(5) 확실히 알려진 응답

정암은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 감당을 놓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응답이 확실한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를 개인별로 처리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각 사람의 개인사정에 따라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다. 각 개인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각각의 처지에 맞도록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다. 정암은 자기 자신이 실제로 특별히 자신의 사명과 관련하여 드린 기도들이 많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실례로 들어 이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 감당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는 확실히 알려진 기도응답들 가운데 사명 관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꼭 응답해주셔요. 사명, 즉 내가 무엇을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 특별히 나같은 사람은 목사요 또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어느 방면에 봉사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실한 신념을 가질 때에 그것이 소명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어떻게 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방면에 쓰니까 그 방면에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55) 박운선, “기도가 목표한 세계”, 1985, 설교 테이프 제11집.

일을 시키는 법이니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때에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확실히 알려지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이 그것이에요. 사명 관계에서 응답을 받는다. 그리고 확실히 알려지는 기도응답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주십니다.⁵⁶⁾

제가 만주에 있을 때 바로 1941년에서 45년까지 만주에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때가 오면 나를 그 방면으로 사용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따가운 것이 분명합니다. 한 4,5년 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해방되자 제가 부족하나마 부산에 내려가서 고려신학교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한 평생에 있어서 고려신학 15년 동안의 교육이 바로 그 중점을 차지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⁵⁷⁾

(6) 작정의지/ 은밀 의지에 의한 응답

정답은 어떤 경우의 기도들은 그 문제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기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의 작정의지 혹은 은밀 의지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기도를 수행한다고 진술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작정의지와 은밀 의지가 있습니다. 작정의지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밝히지 않았고 은밀한 중에 어떻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때에 가서는 세상 뜨도록 한다는 것 같은 것. 그것이 작정의지인 동시에 은밀 의지라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국가와 관계된 모를 문제도 많고, 사회적으로 관련된

56) 박윤선, “나의 생애와 기도생활”, 1987, 설교 테이프 제16집.

57) 박윤선, 앞의 설교.

모를 문제도 많고, 각자의 개인 문제에 있어서도 모를게 많아요. 하지만 기도는 해야 될 문제들이라. 그런 경우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경 말씀과는 위반 안되는 것, 위반 안되는데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지, 그건 또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에 써놓지 않은 문제데 성경에 위반된 것을 기도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 위반은 아닌데 모를 문제라.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발을 달아요. 그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발을 달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밀 의지에 속한 것이니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또 붙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⁵⁸⁾

정암은 이런 경우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습관적이거나 마음을 쏟지 않는 건성으로 하는 기도를 하기 쉽거나 혹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명분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경우에도 기도를 “따갑게” 그리고 “매달리는” 모습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따갑게 못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기 쉬워요. 저는 여기서 지금 깨닫는 것이 이 문제에 있어서 따가워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따가운 것은 무엇인가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달라 달라 하면서 놓지 않고 계속 달라 달라 하는거라 말입니다. 그만큼 따갑고 집중적이고 참으로 고생을 무릅쓰고 애를 태우면서 기도를 계속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또 중요한 기도인데 그저 뭐 맥빠진 기도로 그저 말을 하는 정도로만 해 넘긴다는 것은 참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를 문제데

58) 박윤선, 앞의 설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말입니다.⁵⁹⁾

4) 기도와 설교/기도로 설교에 불을 붙이라⁶⁰⁾

정암은 설교자는 자신이 행할 설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극도로 강조한다. 사실 정암이 기도를 힘주어 강조하는 여러 단락은 설교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암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설교를 말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들을 구분하여 별도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이곳에서 설교와 기도라는 관점에서 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암에게 있어서 설교와 기도와 성령은 마치 하나의 통합체처럼 결합되어 있다. 이 세 행위는 능력있는 참된 설교를 위하여 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정암에게 설교자가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경건 행위의 일부가 아니다. 그에게 기도는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필수적인 행위요 절차이다. 그는 설교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성령의 감화는 기도에 녹아져야 받아지는 것”이라고 단언한다.⁶¹⁾ 기도에 녹아져서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은 동시에 말씀을 진수를 깨닫는 것과도 필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정암의 이러한 가르침은 훗날 나의 설교학 이론을 세우는데도 결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설교를 위한 본문해석에 있어서 설교자의 기도는 단순한 신앙의 덕목이나, 혹은 경건 행위가 아니라, 본문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해석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나의 일관된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암이 설교자는 설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극도로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정암은 자신의 설교준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설교를 지적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기도로 불붙이는 일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⁶²⁾ 한 편의 설교가 능력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작업은 반드시 병행

59) 박윤선, 앞의 설교.

60) 이 항목은, 필자의 논문,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 정암 박윤선의 설교”, 제18회 「정암신학강좌: 정암 박윤선의 설교」, 2006, 100-104의 내용을 보완 인용한 것임.

61) 박윤선,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모범”, 1984, 인천노회 특강, 설교테이프 제5집

62) 박윤선,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 「신학정론」 제4권1호(1986.5), 6.

해야 하는 것임을 그는 강조한다.

물론 그는 본문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설교가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그는 설교 준비에 있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먼저 설교 내용이 성경에 의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암 자신의 체험으로 보아도 기도를 아무리 하여도 성경을 잘 준비 안한 다음에는 설교에 은혜가 없었다면서,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분명히 말하기를,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준비가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며,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빈약하게 된다고 강조한다.⁶³⁾ 정암에게 있어서는 본문 연구가 설교를 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것에 불을 붙이는 일이며,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감화력이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확신이다.⁶⁴⁾ 그는 성경 연구와 기도 준비에 시간을 얼마나 바쳤는가에 따라서 그 설교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자신의 일평생 동안의 설교 사역으로부터 체험한 것이라고 진술한다.⁶⁵⁾

성령의 감화는 기도에 녹아져야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그저 겉으로만 기도하고 껍데기 수작으로 마치 못해서 하는 체하고, 마치 못해서 한 순서를 가지는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 주님께 매달리우는 일이 있어야만 되고, 주님에게 나 자신을 던져 넣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⁶⁶⁾

정암은 1987년도 케직 사경회에서 행한 “나의 생애와 기도생활”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세 가지 기도를 제시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 강단 사역과 관련하여 하는 기도를 들고 있다. 즉 하나님은 설교

63) 박윤선, “나의 생애와 기도생활,” 87 케직사경회 테이프, 설교테이프 제5집

64) 박윤선,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 「신학정론」 제4권1호(1986.5), 6.

65)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수원: 영음사, 1992), 171; “나의 생애와 기도생활,” 87 케직사경회 테이프

66) 박윤선,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모범,” 1984, 인천노회 특강, 설교테이프 제5집

자가 자신의 강단 사역과 관련하여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단정에는 그러므로 설교자는 반드시 자신의 강단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측구가 담겨있다. 정암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위한 기도를 가리켜 “많이”, “따갑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등 여러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이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이 어떻게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해왔는지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 감화력이 없다. 이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때로는 나의 심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 자신이 제물이 될 정도로 심각해지기도 한다. 이같은 헌신의 노력이 아니고는 기도의 진상에 이르기 어렵다.⁶⁷⁾

어떤 때에는 여러 시간 준비 기도를 했는데도 그 설교가 별로 은혜롭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 후에 생각해보니, 준비기도에 시간은 바쳤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⁶⁸⁾

정암은 설교자의 설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경우를 간증한다. 자신은 펜을 잡고 설교를 쓰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기도를 하며, 설교를 말으면 “주여, 주여” 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진술한다.

하나님께 “따갑게” 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따가움”이란 다른 말로 “간절함”이며 그것은 “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저는 기도할 적에 설교 때문에 기도하는 예가 많습니다. 여기 강단에 앉아서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앉아 있어요. 보기는 뭐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뭘 중얼거리며 앉았고, 또 어떤 때는 흔들흔들하며 앉아 있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도,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쓰는 것이 어려워서 그저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간절히 간구를 했던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저 울면서 기도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붓

67) 박윤선,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 『신학정론』 제4권1호(1986.5), 6.

68)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수원: 영음사, 1992), 171.

을 들어서 써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거든요. 성경 말씀을 열어줘서 그저 쓰게 돼요. 모든 설교자들이 다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 연구하고 진리 전파하는 나로서 무슨 기도를 할 겁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뭐 계속하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거든요. 나의 처지에 필요한 것은 구해서 꼭 받아요.⁶⁹⁾

나가는 말

“기도를 많이 하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라구!” 사은회 자리에서 나의 손을 놓지 않으며 하시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졸업을 하였다. 3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선생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섰다. 합동신학교의 총장이 된 것이다. 선생님 생각이 났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멀고 높아보이기만 하던 선생님의 자리에 서니 충격이기도 하고 감격이기도 하였다. ‘박윤선을 다시 살려내야겠다. 그 정신으로 학교를 잘 세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강조하시고 애쓰시던 기도의 전통을 이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합동신학교를 기도를 정밀하게 하는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던 그의 말이 생각났다.⁷⁰⁾ “신학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병이 날 정도로 몸을 끌고 다니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이론주의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타락하게 되고,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탄 소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도 생각났다.⁷¹⁾ 신학운동은 학문운동임과 동시에 기도운동이어야 한다는 말씀도, 기도 없는 연구 작업은 마침내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되며, 참된 기도로 뒷받침하는 신학 연구라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말씀도 생각났다.⁷²⁾

총장 재임 4년 동안 학기 중이면 거의 매주 나는 학교 생활관에서 잠을 잤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매일 새벽 강당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혼자 남아 기도했다. 내가 새벽기도에 그렇게 힘을

69) 박윤선, “기도의 유익”, 1983, 설교 테이프 제9집.

70)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 『합동신학보』 1(1981년 9월 5일) 335에서 재인용.

71) 박윤선, 『야고보의 기도관』, 1985, 합신동문수련회 설교, 설교 테이프 제6집.

72)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수원: 영음사, 1992), 95.

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나 자신 때문이었다. 선생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에 전심을 쏟은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가르침대로,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기도로 학교를 책임질 뿐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는 학교로 세우는 총장이고 싶었다. 새벽이면 교수들도 대여섯 분이를 함께하였고 학교에는 기도가 활발했다. 둘째는 학생들의 졸업 이후에 대한 선생으로서 갖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나는 살아오면서 신학교 다닐 때 보았던 선생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이 종종 떠올랐다. 그때마다 나는 기도에 분발하고 기도에 다시 힘을 쏟곤 하였다. 나의 경우처럼 우리 학생들 가운데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훗날 언젠가 신학생 시절 학교에서 새벽마다 보았던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나의 뒷모습이 기억나서 다시 자신을 부추기며 기도에 열심을 낼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때를 생각하여 지금 총장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겠다는 의도였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다.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 초기부터 일관되게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헤어지기 직전에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었다. 정암 박윤선은 본인의 말대로 평생 '죽기내기로 하는 기도', '생사결단의 기도', '투쟁적으로 힘쓰는 기도', '자기를 던져넣는 투신의 기도'. '피나는 기도', '마음이 타는 기도', '전심기도', '전력기도'에 힘쓴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할 일은 유언이 아니라 기도'라고 할 만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선생님이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정암 박윤선 선생님의 기도생활과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깊이 생각할수록 나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마지막 한마디 결론은 이것이다.

기도에 살 길이 있다.

대책이 없는 인생, 기도가 대책이다.

돌아다니는 뚝뚝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이것은 그가 살았던 수십 년 전 그 시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현대의 신자들,

특히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내려놓고 “기획”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상이다. 신자들이 감동적인 간증이나 찬양행사 등에 관심을 쏟으며 무엇인가 마음을 짜릿하게 해주는 감동을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역대 정암신학강좌 진행 내용 (1989~2023)】

회수	주제	강사	강의제목	날짜	장소	비고
1	정암 박윤선의 삶과 신학	홍치모(총신대) 김정우(총신대) 박형용(합신) 권성수(총신대) 김명혁(합신)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의 박윤선의 위치 박윤선의 시편 주석에 나타난 기독교론적 해석 정암 박윤선의 잠언적 교훈 계약신학에서 본 박윤선의 신학 박윤선의 성경해석학 박윤선 신학에 있어서의 고난의 의	1989. 11.6-7 (월-화)	충현 교회당	논평: 김기홍 성주진 정규남 논평: 김의원 정훈택 전호진
2	개혁주의 신학과 삶	파가슨 (웨스트민스터)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개혁주의 신앙과 삶	1990. 11.5-6 (월-화)	남포 교회당	
3	한국 교회와 개혁주의	손봉호(서울대) 신복윤(합신)	한국 교회와 개혁주의적 삶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여제와 오늘과 내일	1991. 11.12 (월)	할렐루야 교회당	
4	개혁주의 교회관과 성령론	김의환(총신대) Godfrey (웨스트민스터)	개혁주의 교회관, 성령론 개혁주의적 삶과 사역	1992. 11.9-10 (월-화)	남포 교회당	
5	한국 교회와 성령론	김명혁(합신) 권성수(총신대) 박형용(합신) 이수영(장신대)	한국교회의 성령론 고전 12:4-11의 성령은사 사역 구속역사적 입장에서 본 오순절 사건 칼빈의 성령론	1993. 11.8-9 (월-화)	남포 교회당	
6	개혁주의 교회론	이근삼(고신대) 오덕교(합신) 김영재(합신)	신사침례 문제를 재검토한다 청교도적 관점에서 본 교회 정치의 원리 교회의 본질과 교회사업의 한계	1994. 11.7-8 (월-화)	남포 교회당	
7	한국 교회와 남북통일	성주진(합신) 이만걸(숙명여대) Stephen Linton (유진벨재단)	성경에서 본 통일의 원리 한국 교회의 통일 운동 전개과정 남북의 갈등과 그 해결방안	1995. 11.6 (월)	남포 교회당	
8	박윤선과 목회	김명혁(합신) 장상구(총신대) 황창기(고신대)	박윤선의 기도 박윤선의 설교 박윤선의 성령론	1996. 1.11 (월)	충현 교회당	
9	21세기를 향한 선교	Peter Beyerhaus (독일 튜빙겐대)	21세기를 향한 선교 복음의 권위와 종교간의 대화	1997. 11.10 (월)	남포 교회당	논평: 김의환 서정운
10	21세기와 한국 교회 목회	김영재(합신) 림택권(ACTS) 김영원(고신대)	개혁주의 목회 방향 21세기 목회자상 21세기 전망과 한국 교회 목회 전략	1998. 11.9 (월)	남포 교회당	
11	한국 교회와 기독교 윤리	양참삼(한양대) 황의각(고려대) 송인규(합신)	기독교인과 노동 문제 기독교 관점에서 본 경제 문제 미래 사회와 기독교 윤리	1999. 11.8 (월)	남포 교회당	
12	21세기 한국 신학 교육	김상복 (헛볼트리니티 신대원)	21세기 한국신학 교육의 전망과 과제	2000. 11.9 (목)	합신	

13	21세기 목회의 방향	정근두 (울산교회) 조병수(합신)	중소형 목회에 대한 진단과 전망 셀목회와 현대 목회의 전략	2001. 11.5 (월)	남포 교회당	
14	한국 장로교회의 위상 정립	박병식 (송파제일교회) 김재성(합신)	한국 장로교회의 위상 장로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과제	2002. 11.12 (화)	남포 교회당	
15	한국 사회와 교회의 이념적 갈등	이상원(총신대) 이문식 (남서울산본교회)	해무장시대에도 정당 전쟁론은 유효한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이데올로기	2003. 11.11 (화)	본교	
16	정암 신학의 역사적 배경	장해경(ACTS) 정승원(합신)	정암신학의 배경으로서의 화란신학 박윤선과 변증학	2004. 11.9 (화)	본교	
17	죽산 박형룡, 정암 박윤선의 신학과 한국교회에 끼친 역사적 의의	박응규(ACTS) 박응규(총신) 김길성(총신) 유영기(합신)	한국교회에 끼친 박형룡의 역사적 의의 한국교회에 끼친 박윤선의 역사적 의의 박형룡의 신학 박윤선의 신학	2005. 11.8 (화)	화평 교회당	
18	우리의 스승 박윤선의 설교	정성규(대신대) 이상규(고신대) 정창균(합신)	목회학적 관점에서 본 정암 박윤선의 설교 교회사적 관점에서 본 정암 박윤선의 설교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 정암 박윤선의 설교	2006. 11.7 (화)	화평 교회당	
19	한국교회 부흥과 개혁신학	송인규(합신) 이호우 (한국성서대) 현창학(합신)	회개와 부흥:개혁파 신학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한국교회 부흥에 끼친 박윤선의 신학과 신앙 구약성경의 신앙 부흥과 한국교회	2007. 11.6 (화)	은평 교회당	
20	한국교회 큰 스승 정암 박윤선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박성은(정암의 아들, UC의대교수)	박윤선과 목회 정암의 교회 정치론 회고	2008. 11.11 (화)	남서울 은혜교 회당 (밀알학 교)	간담회 사회: 박형용 원로8 인참석
21	목회적 관점에서 본 칼빈의 언약신학	피터 린백 (웨스트민스터신학 대학원 총장)	칼빈의 언약적 성경해석과 언약신학으로부터 추론된 세대주의 비평 칼빈의 언약신학에 근거한 세대주의 비판	2009. 11.10 (화)	화성 교회당	
22	합신30년의 정신-신학 그리고 목회	정창균(합신) 조병수(합신) 이철호 (강성장로교회)	다시 듣는 정암 박윤선의 설교 -합신인에게 남긴 정암 설교의 재조명- 합신 신학의 재조명과 교회를 위한 합신 신학 선언문 한국교회의 교회개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제안	2010. 11.9 (화)	화평 교회당	
23	한국교회 개혁과 박윤선의 복음 이해	하순길(전 고려신학 대학원장) 김병훈(합신) 변종길(고려신학대 학원)	한국교회의 현실과 박윤선의 목회적 교훈 한국교회 개혁과 박윤선의 복음 이해 - 구원론적 접근 한국교회 개혁과 복음의 이해 -사복음서 중심	2011. 11.8 (화)	은평 교회당	

24	정암 박윤선과 개혁신학의 연약사상	성주진(합신총장) 최승락(고려신학대학원) 문병호(총신대)	정암 박윤선과 개혁신학의 연약사상 - 구약신학 관점에서 정암 박윤선과 개혁신학의 연약사상 - 신약신학 관점에서 정암 박윤선과 개혁신학의 연약사상 - 조직신학 관점에서	2012. 11.6 (화)	남서울 은혜교회 (밀알학교)	
25	정암 박윤선과 나의 목회	이상규(고신대) 이문식(산울교회) 문정식(열린교회) 심운진 (동작중앙교회) 남웅기 (바르세교회) 김재윤 (염창동중앙교회) 박성준 (고백운동선박사 아들)	박윤선 박사의 목회관 박윤선의 목회신학으로 본 최근의 제자도 논쟁 정암 박윤선에 나타난 경건과 학문이 조화된 개혁신학의 신학 목사님께서는 선지자이셨습니다 잊히지 않은 조사 박윤선과 나의 목회 실천 게시이론 사색의 변증학적 의미	2013. 11.5 (화)	화평 교회당	
26	개혁신교회와 신앙교육	안상혁(합신) 박상봉(합신) 이남규(합신)	제네바교회와 신앙교육 취리히교회와 신앙교육 팔츠(하이델베르크)교회와 신앙교회	2014. 11.11 (화)	지구촌 교회당	
27	종교개혁과 개혁신학	허순길 (전 고려신학 대학원장) 에미디오 캄피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은퇴교수)	정암 회상: 그의 신앙과 삶 제1강좌-종교개혁과 개혁신학:피터 머미글리 (Peter Malyr Vermigli)-개혁신학자 버미글리 제2강좌-종교개혁과 개혁신학:피터 머미글리 (Peter Malyr Vermigli)-교회론; 공교회, 분리, 이단의 문제	2015. 11.10 (화)	송파제일 교회당	
28	종교개혁과 개혁신학 II	헤르만 셀더르하위스(네덜 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교수)	제1강좌-마틴 부처와 목회사역 제2강좌-죽음에 관하여: 존 칼빈	2016. 11.15 (화)	회성 교회당	
29	종교개혁과 신학과 오늘	이승규(합신) 안상혁(합신)	제1강좌-종교개혁과 우리의 구원 이해 - '이신칭의' 교리의 현대적 적실성 제2강좌-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와 배경 -베셀 한스포르크(c.1419-1489)를 중심으로	2017. 10.31 (화)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강당	
30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정암 박윤선	정창균(합신총장) 황대연 (한가죽교회) 양승헌 (세대로교회)	기조강연- 박윤선은 지금도 유효한가? 제1강좌- 뒤늦게, 그러나 새롭게 만난 박윤선 제2강좌- 아는 세대가 모르는 세대에게	2018. 11.5-6 (월-화)	은평 교회당,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강당	
31	확신	D.A Carson박사 (트리니티신약학교수) 박덕준 (합신구약신학)	제1강좌-부활의 확실성 제2강좌-해석의 정당성이 무엇일까? 제3강좌-이사야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	2019. 11.5 (화)	화평 교회당	
32	한국 교회를 위한 청교도 설교의 유산과 적실성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교수) 이승진(합신)	제1강좌-"청교도 설교자 교육을 위한 모델로서 하이델베르크의 신학" 제2강좌-"청교도 교회정치 안에서 설교자" 제3강좌-"한국 교회를 위한 청교도 설교의 유산과 적실성"	2020. 11.17 (화)	합동신학대 학원대학교 대강당	
33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김병윤(합신) 박형용(합신) 박상중(합신) 이승규(합신)	제1강좌-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역사적 개관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특강-하나님의 사람, 정암 박윤선을 만나다. 제2강좌-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제3강좌-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현대 개혁파 정통신학자들의 견해	2021. 11.16 (화)	합동신학대 학원대학교 대강당 & 온라인	

34	요한계시록, 현재의 눈으로 다시보기	변준길(고신대) 이동수(백석대) 김재성(전 합신대) 김추성(합신)	제1강좌 “박윤선 박사의 요한계시록 주석과 개혁신학” 제2강좌 “계시록의 구속사적 읽기” 제3강좌 “교회의 위기와 박윤선 박사의 지혜” 제4강좌 “요한계시록 20:1-10 사탄의 멸망과 어린양의 승리”	2022. 11.8 (화)	화성 교회당	
35	창세기, 그 본래의 의미를찾아서	기동연(고신대) 홍규식(합신 초빙) 박병식(송파제일교회) 김진수(합신)	제1강좌 “창세기, 경암이 본 하나님의 약속” 제2강좌 “아브라함 언약의 역동성: 자가실생과 위협, 그리고 성취” 제3강좌 “고려파 초기 박윤선의 신학적 긴장” 제4강좌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1:1~2:3의 신학”	2023. 11.7 (화)	온누리 교회당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http://www.hapshin.or.kr>

바른신학 · 바른교회 · 바른생활